인조조의 창경궁 창덕궁 조영
(仁祖朝의 昌慶宮 昌德宮 造營)

金東旭
<京畿大學 敎授>

目　　次

머릿글
第1章 仁祖朝의 昌慶宮・昌德宮 造營槪觀
第2章 史料 『昌慶宮修理所儀軌』,『昌德宮 修理都監儀軌』등에 대하여
第3章 仁祖 11年의 昌慶宮 造營
 第1節 昌慶宮의 修理工役
 第2節 昌慶宮의 造成殿閣
 第3節 仁慶宮殿閣의 撤去와 資材轉用
第4章 仁祖 25年의 昌德宮 造營
 第1節 昌德宮의 修理工役
 第2節 昌德宮의 造成殿閣
 第3節 仁慶宮殿閣의 撤去와 資材轉用
第5章 仁祖26年의 儲承殿 造營
第6章 仁祖朝 以後의 昌慶宮과 昌德宮
맺는글

머릿글

조선초기(朝鮮初期)에 창건(創建)된 창덕궁(昌德宮)과 창경궁(昌慶宮)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광해군(光海君)때 중건(重建)되었다. 이 후로 양 궁궐(兩宮闕)은 크고 작은 재난을 당하였다가 재건(再建)되는 일을 거듭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인조(仁祖)때와 순조(純祖)때의 화재(火災)가 큰 것이었는데 인조(仁祖)때의 화재(火災)는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에 의한 것으로 당시 창덕궁은 내전 대부분과 외전 일부, 창경궁은 내전의 주요전각이 불에 탔었다. 양 궁궐의 복구는 창경궁이 인조(仁祖) 11년(年)에, 창덕궁이 인조(仁祖) 25년(年)에 이루어졌는데, 이 때는 인경궁(仁慶宮)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자재로 건물을 지었다. 순조대(純祖代)에 들어와 다시 양 궁궐의 내전(內殿)이 소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현재의 창경궁 내전건물은 대개 이 때 복구된 건물들이다. 창덕궁의 내전은 1917년에 또다시 소실되었다가 2년 후에 복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창덕궁과 창경궁은 여러 차례의 화재와 복구를 거듭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인조연간(仁祖年間)에 이루어진 재건(再建)은 다음의 2가지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첫째는 당시의 공역(工役)이 인경궁의 건물을 이건(移建)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양 궁궐의 소실된 건물을 다시 짓는데 있어서 다른 곳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여 옮겨지음에 따라 새로 지어진 건물들은 본래의 위치나 형태에서 적지 않게 변화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둘째는, 인조연간(仁祖年間)에 중건(重建)된 양 궁궐의 모습은 현재 동궐도(東闕圖)에서 비교적 구체적

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창덕궁과 창경궁에 관하여는 동국여지승람에 조선초기의 모습이 간략히 소개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인조(仁祖)때의 재건모습이 동궐도(東闕圖)에 나타나 있고, 순조(純祖)때의 재건모습이 궁궐지(宮闕志)(규장각본(奎章閣本), 서울사료총서 3권으로 영인)와 동궐도형(東闕圖形)(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및 또 다른 궁궐지(宮闕志)에 실려 있다.[1] 따라서 동궐도에 구체적인 건물모습이 그려져 있는 인조(仁祖)때의 양 궁궐의 모습은 현재 사료상(史料上)으로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연대가 빠른 것이 된다.

이상의 두 가지 점 외에 인조조(仁祖朝)의 창경궁과 창덕궁의 조영(造營)은 그것이 조선시대 중기(中期)에 이루어진 공역(工役)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궁궐(宮闕)의 변천(變遷)을 이해하는 데 중요(重要)한 위치(位置)를 점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래(從來), 인조조(仁祖朝)의 창경궁과 창덕궁의 재건공역에 관하여는 왕조실록(王朝實錄)의 기사(記事)를 중심으로 소실되었던 전각의 명칭과 나중에 재건된 전각의 명칭이 알려져 있다.[2] 그러나 그 내용은 일부 중요한 전각에 국한되었고 단지 전각의 명칭만이 파악되었다. 더욱이 인경궁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런데 서울대학교(大學校) 규장각도서관(奎章閣圖書館)과 한국 정신문화연구원도서관(구장서각(舊藏書閣))에 소장된 조선 후기의 문서(文書)들 가운데는 인조 때의 창덕궁과 창경궁의 재건에 관한 몇 편의 사료(史料)들이 들어 있다. 그 책들의 제목은 『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등으로 이 의궤(儀軌)들은 모두 동시대(同時代)에 작성된 1차 사료(次史料)이며, 거의 완전(完全)한 상태로 보존(保存)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 공역에 대하여, 공역에 종사한 관리나 공장(工場)의 인명(人名)과 공사에 관련된 왕(王)의 명령이나 지방관(地方官)에 보내는 공문서(公文書)외에 당시 새로이 조성(造成)된 건물의 명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위해 철거된 인경궁의 건물명과 규모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으며, 공역에 들어간 자재의 수량까지 소상히 적어 놓았다. 따라서 이들 의궤(儀軌)는 종래 불충분하게 파악되었던 인조조의 창경궁과 창덕궁의 조영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양 도서관에 소장된 이들 사료를 기본으로 하여 인조조(仁祖朝)에 있어서의 창경궁과 창덕궁의 조영내용(造營內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인경궁(仁慶宮)의 철거자재(撤去資材)의 전용(轉用)과 관련하여 당시 철거된 인경궁의 건물들과 창경궁・창덕궁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재전용(資材轉用)에 따른 건물 이건(移建)의 구체적인 방법(方法) 등을 사료(史料)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종래 동궐도(東闕圖)에서 그림으로만 알려져 왔던 인조조(仁祖朝)의 창경궁・창덕궁의 건축양상이 문헌(文獻)에 의해 확실히 드러날 것이며, 인경궁(仁慶宮)의 자재전용(資材轉用)의 구체적 내용(內容)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

1) 동궐도(東闕圖)의 작성(作成)연대(年代)는 순조(純祖) 26~29년(年)으로 추정되어 순조(純祖) 30년(年)의 화재(火災)이전의 모습 즉 인조(仁祖)때의 재건모습을 담고 있으며, 궁궐지(宮闕志)는 순조(純祖)승하직후에 작성(作成)되어 순조(純祖) 33년(年)의 화재(火災) 후 재건된 내용을 싣고 있다. 동궐도형(東闕圖形)과 다른 궁궐지(宮闕志)는 고종(高宗)때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서울 特別市史, 古蹟編 1964.

第1章 인조조(仁祖朝)의 창경궁(昌慶宮)·창덕궁(昌德宮) 조영(造營) 개관(槪觀)

창덕궁(昌德宮)·창경궁(昌慶宮)이 임진왜란시에 완전히 불에 타고나서 다시 중창(重創)된 것은 광해군(光海君)때였다. 그러나 인조원년(仁祖元年)(1623)에 창덕궁은 외전(外殿)의 일부와 내전(內殿)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고, 그 이듬해에는 창경궁의 내전마저 불에 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 궁궐 중 먼저 중건에 착수된 것은 창경궁으로 소실된 지 9년 만인 인조(仁祖) 11년(年)(1633)에 내전이 복구되었으며, 창덕궁은 소실되고 25년이 흐른 인조 25년(1647)에 가서 중건되었다. 창덕궁의 복구 때에는 창경궁복구 때 미처 손을 쓰지 못했던 동궁(東宮)의 처소인 저승전(儲承殿)도 함께 공사가 진행되어 인조 26년에는 저승전도 중건되기에 이르렀다.

창덕궁에 불이 난 것은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면서 반정군(反正軍)이 궁내(宮內)에 들어와 실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소실을 당한 전각은 외전(外殿)의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을 비롯하여 내전(內殿)의 대부분의 전각들이었다.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에는 「大內가 火하였다. 王은 이미 避匿하여 諸軍이 入宮하였을 때 宮中은 空虛하였다. 索王하였으나 不得이었다. 炬火를 誤遣하여 殿宇가 延燒하여서 上이 都監軍으로 하여금 撲滅케 하였는데 仁政殿이 獨存하였다.[3]」라고 적혀있다. 궁궐지(宮闕志)의 창덕궁편(昌德宮編)에서도 「仁祖元年癸亥反正之夜에 大內가 모두 消盡하였으나 오직 壽靜堂은 存하였다」고 적었다.

위의 기록만으로 보면 인조반정시의 실화(失火)로 창덕궁은 외전(外殿)의 인정전(仁政殿)과 내전(內殿)의 수정당(壽靜堂)을 남기고는 모두 소실된 듯이 보인다. 물론 이때의 화재로 창덕궁은 궁궐(宮闕)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화재가 위의 두 건물만을 남기고 모든 전각을 불태웠던 것은 아닌 듯 하다. 후술(後述)하는 바와 같이 인조(仁祖) 25년(年)의 중건에서 복구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외전(外殿)의 편전과 내전(內殿)의 제전각(諸殿閣) 이었으므로 인조반정때도 인정전(仁政殿)을 비롯한 외전(外殿)의 제전각(諸殿閣)들은 소실은 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조실록(仁祖實錄)에는 창덕궁이 복구되기 전에도 궁내에 도총부(都摠府)·내약방(內藥房)·춘추관(春秋館) 등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귀절이 있는데[4] 이 건물들이 모두 외전(外殿)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시의 화재가 외전(外殿) 모두에 파급되지는 않았음을 입증한다.

인조반정이 있은 이듬해인 인조(仁祖) 2년(年)에 들어와서 반정(反正)에 대한 논공(論功)에 불만을 품은 이괄(李适)이 일시 궁(宮)을 점령하는 난(亂)이 발생하였다. 당시 왕(王)은 창경궁에 머물다가 난(亂)이 발생하자 몸을 피하였는데 난민(亂民)들에 의하여 창경궁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불은 내전(內殿)의 많은 전각들을 태웠는데 궁궐지(宮闕志) 창경궁편(昌慶宮編)에는 「인조(仁祖) 2년(年) 갑자(甲子)에 역난(逆亂)을 도모한 난민(亂民)이 대궐(大闕)을 향하자 왕(王)의 일행이 남(南)으로 행행(幸行)하였다. 궐내(闕內)가 거의 비어버리자 무뢰한자들이 때를 타서 대궐에 들어가 노략과 방화를 하여 통명(通名)·양화(養和)·환경전(歡慶殿) 등(等) 모두 불타버린 것이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적었다.

양대(兩大) 궁궐(宮闕)의 내전(內殿)이 모두 소실되자 왕(王)은 경덕궁(慶德宮)에 임시 거처를 정하여 지내었다. 그후 인조(仁祖) 5년(年)에는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고 인조(仁

3) 光海君日記 15年 3月 壬寅條
4) 仁祖實錄 元年 3月 癸卯條

祖) 10년(年)에는 대왕대비(大王大妃)인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상사(喪事)가 있어 궁궐의 복구는 그 이듬해인 인조(仁祖) 11년(年)에 가서야 착수되게 되었다.

두 궁궐가운데 먼저 복구된 것은 창경궁이었는데 그것은 창덕궁에 비해 창경궁이 피해가 적어 공사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광해조(光海朝) 때 인왕산하(仁王山下)에 창건하였던 인경궁(仁慶宮)의 전각 일부를 철거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인조실록(仁祖實錄)의 기사(記事)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仁慶宮은 昏朝(光海朝)에 狂僧이 倡議하여 營建한 것이며, 그 棟宇制度가 奢麗를 極하여서 실로 木妖라고 말할만합니다. 이곳은 본시 帝王의 거처로는 不合한데 다만 事勢가 급하여서 앞서 이곳에 移御할 것을 稟申한 것은 不得已한 일이었습니다. 人君께서 移御할 것을 바라지 않으니 敢히 更請할 수가 없습니다. 昌德宮은 本이 朝宗法宮으로서 宣祖末年에 重建되어서 不幸히도 지금 灰燼되었는데 可惜한 일입니다. 만약 仁慶宮의 數處殿閣을 헐어서 그 材瓦로서 昌德宮에 移構한다면 仁慶宮을 修理하는데 비하여 비록 難易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祖宗의 法官이 修建되는 것이니 事理로 보아서도 便當할 줄 압니다. 答하여 曰, 昌慶宮의 灰燼處가 많지 않으니 이 闕을 修理함이 可하다.[5]」

이렇게 하여 먼저 착수된 창경궁의 수리는 인조(仁祖) 25년(年)이 되자 창덕궁(昌德宮)의 복구도 착수되었는데, 그해 6월(月)의 인조실록(仁祖實錄)에는, 「昌德宮修理를 命하였다. 癸亥 反正日에 모두 灰燼되어서 다만 仁政殿만이 獨有하였었는데 至是하여 昌慶宮에 咀呪之變이 있어서 上은 장차 移御코저 仁慶宮의 材瓦階礎를 撤하여 改作하였다. 비록 이름은 수리하였지마는 其實은 營建이었다.[6]」라고 하여 이 달에 창덕궁의 수리가 하명(下命)되고 이때에도 인경궁의 전각을 철거하여 창덕궁을 짓도록 하였다. 이 수리공역은 그 해 11월(月)에는 완료되고 왕(王)이 창덕궁에 이어(移御)케 되었는데 인조실록(仁祖實錄)에 「上이 昌德宮에 移御하였다. 修理之際에 多所營하여 凡諸廓無가 一視有制하였는데 大內에는 大造殿·宣政殿·熙政堂·靜默堂·集祥堂·寶慶堂·玉華堂·泰和堂·讌和堂 그리고 澄光樓가 있어서 가장 壯麗하였다.[7]」고 적었다.

창덕궁의 수리는 인조(仁祖) 25年 6月에 시작되어 그 해 11月에 끝마쳤음을 실록(實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창덕궁 대내(大內)의 수리와 함께 창경궁(昌慶宮)에 속해 있던 동궁(東宮)의 처소인 저승전(儲承殿)의 수리도 진행되었다. 다음 장에 소개하는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에 의하면 창덕궁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던 인조(仁祖) 25년(年)의 8월(月)에 미처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동궁(東宮) 저승전(儲承殿)에 대한 수리가 결정되어 창덕궁수리와 병행하여 동궁(東宮)처소의 수리가 시작되었다. 저승전의 수리공역은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듯하여 한달 후인 9月에는 입주(入住)·상량(上樑)까지 이루어졌으나 그 후 공사가 지체되면서 창덕궁 공역이 끝난 11月에도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동절기(冬節期)에 들어가자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듬해 2月에 다시 시작하였으며, 4月에 완성(完成)을 보게 되었다. 저승전의 공역에서도 역시 자재는 인경궁(仁慶宮)의 일부 전각을 뜯어내어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인조연간(仁祖年間)에 이루어진 창경궁(昌慶宮)·창덕궁(昌德宮) 및 저승전(儲承殿)의 수리공역(修理工役)은 모두 인경궁(仁慶宮)의 전각(殿閣)을 철거(撤去)하여 그 자재

5) 仁祖實錄 11年 4月 丙辰條
6) 仁祖實錄 25年 6月 甲申條
7) 仁祖實錄 25年 11月 戊申條

로 전각을 다시 짓게 되었다. 여기서 인경궁(仁慶宮)은 어떠한 궁전이었는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인경궁(仁慶宮)은 광해군(光海君) 9년(年)(1617)에 창건역사(創建役事)가 시작되어 약 6년(年)의 공역(工役)을 거쳐 광해(光海) 15년(年)에는 전각의 대부분이 완성(完成)되었다. 그 위치는 인왕산(仁王山)아래 현재의 종로구(鐘路區) 필운동(弼雲洞)·누상동(樓上洞)·누하동(樓下洞)·옥인동(玉仁洞) 일대로 비정(比定)되고 있다. 이 궁(宮)이 창건된 동기는 광해군(光海君)이 풍수음양설(風水陰陽說)에 따라 창덕궁(昌德宮)을 흉궁(凶宮)으로 생각하여 이곳에 머물기를 꺼리고 인왕산(仁王山)아래를 길지(吉地)로 생각하여 궁(宮)을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인경궁의 영건에는 성지(性智)라는 중과 중국인(中國人) 술사(術士)가 기지(基址)의 상택(相擇)에서 전각의 영조에까지 관여하였었는데 이들은 풍수(風水) 등에 능한 자들이었다고 한다.[8)]

인경궁의 전각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전각의 수, 건물의 세부치장에 있어서 창덕궁이나 창경궁에 못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화려하고 광대하였던 듯하여 「목요(木妖)」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궁내(宮內)에는 경회루의 제도에 따라 누각을 세우도록 명했다는 기록도 있고 대내전당(大內殿堂)과 누각에는 중국산(中國産)의 당주홍(唐朱紅)을 칠하였다고 한다.

한편 인경궁의 침전(寢殿)의 건물들은 창경궁(昌慶宮)의 경춘전(景春殿)·환경전(歡慶殿)을 모방하여 지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9년(年) 5월(月) 계미조(癸未條)에 「침전제도는 모두 일일이 圖書를 詳議하여 啓稟하여 정할 것인 즉, 두 침전은 景春·明光殿의 例에 따라 向背하여 조성함이 가하다.…, 外寢殿의 役은 歡慶殿의 例에 따르라」는 전교(傳敎)가 보인다.

인경궁(仁慶宮)은 장대한 규모로 화려하게 영건되어 광해(光海) 15년(年)에는 대체로 전각의 조성이 끝난 상태였으나 부분적인 공역은 그 해에도 계속되었었다. 그러다가 그 해 3월(月)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 광해군(光海君)이 폐위(廢位)되면서 공역도 중단되고 궁은 폐궁(廢宮)으로 방치되었다. 이 궁은 처음 창건때부터 대신(大臣)들로부터 반대(反對)를 받았던 것으로 인조가 등극하고 소실된 창경궁과 창덕궁을 중건하게 되자 전각들이 하나씩 철거되어 효종연간(孝宗年間)에는 궁궐의 자취가 사라지게 되었다.

第2章
사료(史料)『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等에 대하여

인조조(仁祖朝)의 창경궁·창덕궁수리공역에 관련된 사료(史料)로는 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 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외에, 이 공역과 관련된 효종연간(孝宗年間)에 편찬된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가 있다. 이들은 모두 공역이 있던 당시(當時)에 작성·편찬된 동시대(同時代)의 1차(次)자료들이며 마지막의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장(落帳)이 없는 완전(完全)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신뢰도(信賴度) 높은 사료(史料)들이다.

---

8) 韓星國, 仁慶宮考, 鄕土서울 제21호, 1969.

이 사료들은 서울대학교내 규장각(奎章閣)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창덕궁수리도감의궤와 저승전의 궤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서관 (구(舊) 장서각(藏書閣))에도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국가의 중요 서책들은 소위 오대사고(五大史庫)라고 불리우는 중앙(中央)과 각 지방의 사고(史庫)에 분산·보관되었었는데 이들 의궤서 역시 지방의 사고(史庫)에 수장되었다가 근년에 양 도서관에 이치(移置)된 것들이다. 이 의궤서들은 글자의 인멸이 없고 거의 다 낙결장(落缺帳)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는 이 사료들이 국가적인 보호 아래 사고(史庫)에서 잘 보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각 의궤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필자가 인용한 사료는 창경궁수리소의궤와 창덕궁수리도감의궤는 규장각소장 원본에 의한 것이고, 창덕궁수리도감의궤와 저승전의궤는 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의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것이다.

(1) 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

「숭정육년계서팔월일(崇禎六年癸西八月日)」「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라고 표지에 적혀 있는 이 의궤는 인조(仁祖) 11년(年)의 창경궁수리를 기록한 것으로 표지에는 수리도감(修理都監)이라고 적었으나 안의 첫 장에는 수리소의궤(修理所儀軌)라고 하였고, 이 공역 때는 도감(都監)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명칭은 창경궁수리소의궤로 하였다.

이 의궤의 작성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인조 11년 7월 20일로부터 8일 후인 7월(月) 28일(日)에 「의궤사목단자(儀軌事目單子)」가 작성되었고, 의궤서 말미에 공역을 주관하였던 당상(堂上), 도청(都廳) 등의 수결(手決)이 있으므로 공사완료 직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의궤는 전체 75장(張)으로, 주요내용은 공사감역관(工事監役官)의 조직에 이어 인조 11년 3월(月) 25일(日)부터 8월(月) 5일(日)까지의 수리소(修理所)가 왕(王)께 공사진행을 위해 올린 계사(啓辭)를 수록하고 이어 「인경궁전각철이질(仁慶宮殿閣撤移秩)」「정식(定式)」「각처상하(各處上下)」「각종채색잡물도합수(各種彩色雜物都合數)」의 항목을 적었으며, 그 뒤에 1소(所)에서 5소(所)까지 각 작업소별로 감역관명단, 조성된 전각명칭과 간수(間數), 소요자재, 공장명단을 적고 마지막은 노야소(爐冶所)의 감역관명단과 제작된 철물내역 등을 적었다. 각 작업소별 조성 전각에 대하여는 새로 조성된 창경궁의 각 전각별로 이를 위해 철거해온 인경궁의 전각명칭과 칸수를 일일이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2)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

책 첫머리에 「순치사년정해육월십오일(順治四年丁亥六月十五日)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라고 적었다. 전체 184장(張)으로 되었으며, 다른 이 시기의 의궤서에 비하여 체제가 갖추어 있고, 글씨도 정자(正字)로 씌어 있다. 내용은 처음에 공사감독관의 조직을 밝히고 이어서 정해(丁亥)(인조(仁祖) 25년(年)) 6월(月) 13일(日)부터 11월(月) 21일(日)까지의 계사(啓辭)를 적고 주요전각의 상량문(上樑文)을 수록하였다. 이어서 각 지방에 보내거나 지방에서 도감에 보내진 공문서를 모은 이문질(移文秩)과 다른 관청과의 문서들을 모든 감결질(甘結秩)이 있다. 그 뒤에는 1소(所)에서 5소(所)까지의 각 작업소별 감역관명단·조성전각의 명칭과 규모, 각 소(所)의 공문서, 소요자재목록 및 공장명단을 수록하고 의궤사목(儀軌事目)을 적었다. 의궤사목에 의하면 이 의궤는 5부(部)가 작성되었으며, 어람용(御覽用)을 제외하고 의정부(議政府)·춘추관(春秋館)·예조(禮曹)·적상산성(赤裳山城) 등에 분장시켰다고 하였다. 마지막장에는 도제사(都提詞) 이하(以下)의 주요관리들의 수결(手決)이 있다. 이 의궤에서는 특히 각 전각을 조성함에 있어 인경궁에서 철거해 온 자재를 부재

별로 구분하여 그 수량을 명시하고 창덕궁을 짓는데 소요된 자재 역시 부재별로 수량을 명시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각 조성의 방법을 고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7세기의 우리 나라 목조건축의 부재명칭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 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

저승전(儲承殿) 즉, 동궁(東宮)의 공역(工役)은 인조(仁祖) 25년(年)의 창덕궁수리공역의 일환으로 함께 착수되었다. 그러나 창덕궁공역은 그해 가을에 완료(完了)되었으나 저승전공역은 이듬해 봄까지 연장되었다. 따라서 의궤서의 편찬은 먼저 공역이 끝난 창덕궁에 대하여 그 해에 먼저 간행을 하고 저승전에 대하여는 인조(仁祖) 26년(年)에 별도로 작성되었다. 이 때문에 저승전은 별도의 도감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창덕궁공역의 잔여부분을 마무리짓는 형식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의궤서도 일정한 체재를 갖추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궤서는 총 89장(張)이며, 첫장에 「순치오년정월(順治五年正月) 일(日) 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라고 적고 공사감역관의 조직을 적었다. 이어서 「전유재질(前遺在秩)」이라 하여 전년(前年)의 공사에서 남은 자재의 목록을 수록하고 나서 정해(丁亥) 8월(月) 15일(日)부터 이듬해인 무자(戊子) 4월(月) 12일(日)까지의 계사(啓辭)를 적었다. 계속해서 정해(丁亥) 12월(月) 14일(日)부터 무자(戊子) 7월(月)까지의 이문질(移文秩)이 있으며, 그 뒤에 좌소(左所)·우소(右所) 및 외소(外所) 노야소(爐冶所)별로 감독관명단, 공문서(公文書), 조성전각(造成殿閣)의 명칭과 규모, 소요자재, 공장명단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에는 역시 제조(提調)의 수결(手決)을 실었다. 이 의궤는 조성간각(造成間閣)의 규모나 공사내용 등이 간략히 기록되었고, 인경궁전각과의 이전(移轉)내용도 막연하게 전체 건물명칭으로만 기록하여 다른 의궤서보다 소략(疏略)한 기술을 하고 있다.

(4)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

이 의궤는 효종(孝宗) 3년(年)에 있었던 창덕궁·창경궁 수리공역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인조(仁祖)때의 공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효종(孝宗) 3년(年)(1652)은 창덕궁공역이 있던 인조(仁祖) 25년(年)(1647)에서 불과 5년 후(年後)가 되며, 효종(孝宗) 3년(年)의 수리공역이 모두 인조(仁祖) 11년(年)의 창경궁수리와 인조(仁祖) 25, 26년(年)의 창덕궁·저승전공역에서 수리되었던 전각을 대상으로 한 보수공역(補修工役)이었다는 점에서 인조년간(仁祖年間)의 양 궁궐 수리공역의 성격을 음미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되어 본(本) 고찰(考察)에 포함하였다.

이 의궤는 전후에 약간의 낙장(落張)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이 책의 편찬년대가 들어 있었던 듯하여 종래 연기미상(年紀未詳)으로 취급되었었다. 그러나 1986년(年)에 창경궁발굴조사보고서(昌慶宮發掘調査報告書)를 간행(刊行)하면서 장순용씨(張順鏞氏)에 의해 이 의궤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효종(孝宗) 3년(年)의 기록임이 판명되었다.[9] 앞부분의 결락(缺落)으로 공사감독조직은 보이지 않으며, 효종(孝宗) 3년(年) 정월(正月) 15일(日)부터 4월(月) 22일(日)까지의 계사(啓辭)와 이문(移文), 감결(甘結)이 수록되었다. 이어서 창덕(昌德) 1소(所)·창덕(昌德) 2소(所), 창경(昌慶) 1소(所)·창경(昌慶) 2소(所), 굴토(掘土) 1소(所)까지의 각 소(所)의 감역관 명단과 작업내용에 관한 공문, 자재목록, 공장명단이 있다. 끝부분도 결락(缺落)되어서 거토(据土) 1소(所)의 중간정도로 내용이 끝났으며, 모두 73장(張)이 남아 있다. 이 의궤는 공사가 주로 바닥의 보수(補修)에 있었던 만큼 공사규모도 적고, 그 기술도

9) 文化財管理局編, 昌慶宮發掘調査報告書, 1986.

상세하지는 않으나 앞의 의궤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창경궁전각의 바닥구조를 알려주고 있어 주목된다.

第3章 인조(仁祖)11年의 창경궁(昌慶宮) 조영(造營)

第1節 창경궁(昌慶宮)의 수리공역(修理工役)

창경궁대내(昌慶宮大內)의 수리공역(修理工役)은 창경궁수리소(昌慶宮修理所)라는 임시기관이 공역을 주관하여 인조(仁祖) 11년(年)의 4월(月)에서 7월(月)까지 약 4개월의 짧은 기간안에 끝마치었다. 수리소(修理所)에는 공역(工役)을 감독·주관하는 관리들이 조직되고 경향(京鄕)각지에서 공장(工匠)들이 동원되었다.

인조(仁祖) 11년(年) 3월(月) 25일(日)에 창경궁의 수리에 대한 왕명(王命)이 내려지자 그 이튿날에는 공사를 주관할 기관으로 수리소(修理所)가 설치되고 4월(月) 1일(日)에는 공사에 대한 제반규칙을 정한 사목단자(事目單子)가 정하여졌다. 이어 4월(月) 3일(日)부터 시역(始役)되었는데 우선 인경궁의 전각철거가 시작되었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4월(月) 18일(日)에는 통명전(通明殿)·환경전(歡慶殿)·양화당(養和堂) 세곳의 입주(立柱)가 완료되고 4월(月) 21일(日)에는 상량(上樑)이 이루어졌다. 이 후 부속 행각이 세워지고 각 전각의 창호설치와 단청(丹靑)공역등이 진행되어 전체공역은 시역일에서 3개월과 17일이 지난 7월(月) 20일(日)에는 필역(畢役)을 고(告)하였으며, 7월(月) 25일(日)에는 왕(王)은 창경궁에 이어(移御)하였다.[10] 공사가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이 공사가 신축이 아니고 기존의 터전에 인경궁건물을 이건(移建)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왕(王)이 창경궁의 수리를 명(命)한 다음날에 비변사(備邊司)는 「이번의 궁궐수리는 따로 都監을 설치할 필요없이 잠시 인경궁수리소의 堂上이 察任하여 급히 役處를 看審한 연후 이를 품하도록 함이 의당할 것입니다[11]」라고 계(啓)하여 왕(王)의 허락을 얻는다.

창경궁수리소는 당시 부분적인 수리를 하고있던 인경궁수리소의 조직을 그대로 옮기어 진행하였던 것인데 창경궁수리소의 공사 최고책임관인 당상(堂上)에는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 외에 완풍부원군(完豊府院君)·공조판서(工曹判書) 등 모두 8인(人)이 임명된다. 이 가운데 특히 완풍부원군(完豊府院君) 이서(李曙)에 대하여는 왕(王)이 전교(傳敎)하여 그가 「범사선위요리(凡事善爲料理)」하여 당상(堂上)에 차하(差下)한다고 밝히고 있다.[12]

이어서 공역(工役)을 분장(分掌)·감독할 감동(監董)을 선정하였는데 도청(都廳) 2인(人), 낭청(郎廳) 6인(人), 감역관(監役官) 8인(人)이 임명되었다. 이 중 도청(都廳)은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에 있던 자들이고 낭청(郎廳)은 한성부(漢城府) 서윤(庶尹)·호조정랑(戶曹正朗)·선공감주부(繕工監主簿) 등 4품(品)에서 6품(品)사이의 문반(文班)의 내관직(內官職)에 있던 관리들이며 감역관(監役官)은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와서별좌(瓦署別座)·선공감직장(繕工監直長) 등 7품(品) 이하의 관리들이다.

4월(月) 1일(日)에는 공사의 각종 지침을 정한 11개조(條)의 사목단자(事目單子)가 내려졌는데 감독관의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공장(工匠)의 소집대상, 서리(書吏)·고직(庫直)등의 인

10) 昌慶宮修理所儀軌
11) 昌慶宮修理所儀軌, 3月 26日條
12) 同儀軌, 4月 1日條

원수가 정해지고 기타 공사의 부수적인 일들의 지침이 세워졌다.

감독관에 대하여는 낭청(郎廳) 5인(人)을 3방(房)으로 나누어 호조(戶曹)의 낭청(郎廳)은 미포잡물(米布雜物)을, 병조(兵曹)·한성부(漢城府)의 낭청(郎廳)은 군장(軍匠) 즉 모군(募軍)[잡역부]과 공장(工匠)을 관장하며, 공조(工曹) 선공감(繕工監) 낭청(郎廳)은 재목(材木)·철탄(鐵炭) 등을 분장(分掌)하도록 하였다. 낭청(郎廳)에 대하여는 다시 4월(月) 3일(日)에 「전각낭무(殿閣廊無)를 조성(造成)함은 5개의 소(所)로 나누어 삼조(三曹)·한성부(漢城府)·선공감(繕工監)의 낭청(郎廳)이 각 1소(所)를 관장하여 낭청(郎廳) 5원(員)이 모두 일을 맡도록 하고 공역(工役)을 독촉하는 일은 부득이 각각 감역관(監役官) 1원(員)을 내어 감독하도록 할 것」을 정하였다.

공장(工匠)에 대하여는 사목단자(事目單子)에 「각항에 應役하는 匠人은 上司衙門이나 諸宮家의 好子·皂隷, 羅匠, 砲殺手를 물론하고 모두 불러낼 것」을 정하였다. 사목(事目)에는 역(役)에 응(應)하는 공장(工匠)에 대해 아문(衙門)이나 궁가(宮家)의 노자(奴子), 훈련도감내의 포살수(砲殺手) 등만 거론하였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서는 경중(京中)의 장인(匠人)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전국(全國)으로부터 공장(工匠)들을 불러모았다. 그 결과 창경궁수리공사에는 전국으로부터 목수(木手) 99명, 석수(石手) 84명, 니장(泥匠) 30명, 화원(畵員) 39명 칠장(漆匠) 51명 등 모두 15직종(職種)의 공장(工匠) 373명이 동원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온돌변수(溫堗邊首)·목수변수(木手邊首)·니장변수(泥匠邊首)·칠장변수(漆匠邊首) 등이 있어, 각 직종별로 공장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다.

한편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공사의 잡일을 하는 단순노동자들도 다수 있었는데 이들은 모군(募軍)이라고 불렀다. 원래 이러한 단순노동력은 농민들에 대한 부역으로 충당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으나 조선중기에는 일정한 노임을 주고 일꾼을 모집하여 확보하였으며, 창경궁수리 때 모군(募軍)은 1삭(朔)에 가포(價布) 2필(匹)과 미(米) 10두(斗)씩을 받았다.[13]

第2節 창경궁(昌慶宮)의 조성전각(造成殿閣)

인조(仁祖) 11년(年)의 수리공역(修理工役)으로 새로 조성(造成)되거나 수리(修理)가 이루어진 창경궁(昌慶宮)의 전각(殿閣)은 내전(內殿)의 침전(寢殿)과 주변 월랑(月廊)을 비롯하여 침전부근의 당청(當廳)들과 이괄의 난 때 소실을 면하였던 외전(外殿)의 정전(正殿)·편전(便殿) 및 주변 건물들이었다. 이 공역(工役)은 5개의 작업소(作業所)가 분담(分擔)하였는데 창경궁수리소의궤에는 각 소(所)별로 공사가 이루어진 전각의 명칭과 간수(間數) 그리고 전각조성을 위해 철거된 인경궁의 전각을 밝혀두었다. 표-1은 이를 건물별로 정리한 것이다.

13) 工匠들 역시 募軍과 同一한 액수인 1朔에 價布 2匹, 米 10斗를 받았는데 工匠과 募軍의 노임은 17, 18세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액수로 되다가 18세기말에 들어와 工匠의 노임이 높아진다(金東旭, 「朝鮮後期建築工匠의 勞賃考」,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5. 10.)

표-1. 인조(仁祖) 11년(年)의 창경궁(昌慶宮) 전각조성(殿閣造成)

표-1. 仁祖 11年의 昌慶宮 殿閣造成

作業所	造成된 창경궁 전각의 명칭과 규모	공사 구분	철거된 인경궁전각의 명칭과 규모
第1所	通明殿 5間 4面 退作 25間	移 造	靑瓦殿 36間
	思誠閣 4間 前後及其下月廊 5間 前後退	〃	觀儲堂 前後退 12間
	西冊房 6間 後退	〃	福仁堂 大廳前退 3間, 獻祿堂 溫突 4間
	西行閣 閣閣 井 6間	〃	興慶堂 月廊 5間
	西行閣 南通月廊 3間	〃	福仁堂 東西行廊 4間
	東行閣 閣閣 井 4間	〃	延祥門外月廊 4間
	東行閣 南通 5間	〃	福仁堂 西溫突 4間, 及重慶殿北月廊 1間
	東月廊 7間	〃	靑瑣堂廚房前退 3間, 慶興堂東月廊外 3間
	南月廊 5間 前退及正陽門 1間 前退	新 造	
	麗煇堂 3間 4面退	修 補	
	水剌間 4間 前退	〃	
	鑄鈷家 6間 前退東西退	〃	
第2所	養和堂 3間 4面 退作 20 間	移 造	無逸堂 20間
	東南隅階上筋門 1	新 造	
	東月廊 6間	修 補	
	南月廊 9間	移 造	碧月堂 行廊 9通
	通天門 1間	〃	碧月堂 1間
	應明門 1間	修 補	
	延禧堂 3間 4面 退作 20間	移 造	廣運堂
	東月廊 5間	〃	獻祿堅東月廊 3間 西月廊 2間
	西層階上假抹樓 2間	移 排	慶善宮所儲板子
	西月廊 5間	移 造	碧月堂月廊. 1間, 興禮堂 1間 文明殿外月廊 3間
	南北隅筋門各處	新 造	
	南月廊 10間(9間前退)	移 造	慈慈別堂
	(1間無退)	新 造	
	北月廊 6間(4間前退)	移 造	獻祿堂 北月廊 5間
	(2間無退)	新 造	
	南層階上假抹樓 2間	移 排	慶德宮新儲板子
	演慶堂 3間 前退作 9間	移 造	獻祿堂
第3所	歡慶殿 5間 4面退 28間	〃	文明殿 28間
	東月廊前退 11間	〃	文明殿外行廊 9間, 延祥門內月廊 3間
	南月廊前退 13間	〃	隨風雨樓各 5間, 文明殿外行廊 3間
	西月廊 12間	〃	廣雲堂北行廊 8間, 廣運堂南行廊 4間
	橫家 5間	〃	文明殿內行廊 5間
	景春殿 5間 4面退 28間	〃	興禮堂 備邊司材瓦
	南月廊 10間	〃	興禮堂 材瓦
	集瑞門 1間	〃	同
	福仁亭 1間 4面退 9間(5間) (4間)	移 造 新 造	慶壽殿後行閣 5間
	歡慶殿東墻外		集義門內行廊 5間 前退

<page 17 표>

第4所	第1月廊 13間 前退	移造	內差備水刺間 5間 前退 3間 無退
	第2月廊 16間 前退(5間)	修補	
	(11間)	移造	□□門內行廊 15間
	北行廊 9間(2間)	修補	
	(5間)	移造	(慶德宮弘文館書閣)
	(2間)	新造	
	內差備行踏間 7間(1間)	修補	
	(6間)	新造	
	第3月廊 20間	修補	
	井邊曲家 5間(4間)	修補	
	(1間)	新造	
	饌室 7間	移造	永肅門內行廊 7間
	涼家 2間, 洗踏家 2間, 廁間 6間	修補	
	長慶門內月廊 34間(33間)	修補	
	(1間)	新造	
第5所	明政殿, 御座五峯山及倚莊	修補	
	文政殿, 同	〃	
	大殿長番內官廳 13間	新造	
	中殿長番內官廳 8間內 2間	〃	
	東宮殿長番內官廳 5間內 2間	〃	
	嬪殿長番內官廳 4間內 2間	〃	
	世子侍留廳 3間	改造	
	時敏堂 14間, 進修堂 18間, 崇文堂 12間, 夜對廳 3間, 觀光廳 7間, 內班院 31間(其他 廳堂 略)	修理	

<page 18 표>

표-1의 창경궁 조성전각난을 보면 제1소가 통명전(通明殿)·사성각(思誠閣)과 주변 월랑(月廊) 등을 이조(移造)하고 여휘당(麗輝堂)을 수보(修補)하였으며, 제2소는 양화당(養和堂)·연희당(延禧堂)·연경당(演慶堂)과 주변 월랑(月廊)을 이조하였으며, 제3소는 환경전(歡慶殿)·경춘전(景春殿)·함인당(函仁堂)과 주간 월랑을 이조하였다. 제4소는 환경전 동장(東墻)밖의 각종 부속사의 이조 및 수보를, 제5소는 명정전(明政殿)과 문정전(文政殿)의 내부를 수리하고 그 밖의 각 아문(衙門)이나 동궁(東宮)처소 일부 등을 수리하였다.

그런데 표-1은 인조 11년에 있었던 창경궁수리공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즉, 표로 정리된 의궤(儀軌)의 기록은 각 소의 공역내용을 「이조(移造)」·「수보(修補)」·「신조(新造)」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이 공사때 어느 건물이 이조(移造) 즉 인경궁(仁慶宮)으로부터 옮겨져 왔으며, 수보(修補) 즉, 이괄의 난에 소실되지 않고 남았다가 수리되었으며, 신조(新造) 즉, 완전히 새로이 조성되었는가를 밝혀주는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조(移造)된 건물은 제1소에서 통명전과 사성각 및 주변의 행각과 월랑이며, 제2소에서 양화당과 주변 월랑, 연희당과 동남서(東南西)의 월랑, 그리고 연경당(演慶堂)이며, 제3소에서 환경전과 경춘전과 월랑,, 그리고 함인정, 제4소에서는 환경전 동장밖의 월랑과 찬실등이다. 수보(修補)된 건물은 여휘당·수라칸과 양화당의 동월랑, 환경전 동장밖의 월랑일부와 명정전·문정전 및 각 내관청과 시민당·진수당·숭문당과 야대청·내반원 등의 아문(衙門) 등이었다. 신조(新造)는 월랑의 일부로 통명전의 남월랑 5칸, 연희당의 월랑 1, 2칸, 함인정의 일부, 그리고 환경전 동장 밖의 일부 월랑이었다.

이상 창경궁수리소의궤에 기록된 조성된 전각의 명칭을 통하여 인조 11년의 수리공역은 통명전·연희당·연경당·환경전·경춘전·함인정 등 내전을 구성하는 주요전각을 인경궁에서 철거해 온 건물로 이조(移造)하는 일과 이괄의 난에 소실을 면하였던 명정전·문정전과 동궁처소의 일부 건물들에 대한 수보(修補) 그리고 일부 월랑(月廊)의 신조(新造)로 이루어

졌음을 알았다.

한편, 동(同) 의궤에는 당시 공역이 이루어진 전각들의 명칭과 함께 건물의 규모를 명시하여 놓았다. 이것은 인조대(仁祖代)의 창경궁 전각의 구체적인 건물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주변 월랑등의 규모를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주요 전각의 규모를 보면,

通明殿 5間 4面退作 28間
養和堂 3間 4面退作 20間
延禧堂 3間 4面退作 20間
演慶堂 3間 前退作 9間
歡慶殿 5間 4面退 28間
景春殿 5間 4面退 28間
函仁亭 1間 4面退 9間

등이다. 이것은 전각의 규모를 평면적인 간수(間數)를 기준으로 표기(表記)한 것인데 그 표기방법은 정간(正間)과 주변의 퇴간(退間)을 구분한 것으로 통명전(通明殿)의 경우 정간(正間)의 정면이 5칸이며, 정간(正間)의 사방에 퇴칸이 설치되어 전체 28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칸의 측면은 2칸이 되어야 정칸 10칸에 전후 퇴칸 10칸, 좌우측 퇴칸 8칸으로 모두 28칸이 된다. 결국 통명전은 밖에서 보면 정면 7칸, 측면 4칸의 건물이 되는 것이다. 다른 건물들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표기되었는데 특히 함인정은 정칸의 정면이 1칸으로 사면에 퇴칸이 설치되어 모두 9칸의 평면이 되며, 외부에서 보면 정면3칸 측면 3칸이 된다.

인조 11年에 재건된 창경궁의 중요전각들을 동궐도(東闕圖)의 그림과 비교하여 보면 그 건물규모가 거의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통명전은 정조 때 소실되어 동궐도에는 그 건물터만 그려져 있는데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의궤의 기록과 일치한다.

다음, 전각 주변의 月廊 등을 살펴보면, 우선 통명전 주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성각・서책방과 서(西)・동(東)・남방(南方)으로 행각(行閣)과 월랑(月廊)이 둘러 싸여있으며, 주변에 여휘당・수라간이 있다. 양화당 주변에도 동월랑(東月廊) 5간(間), 남월랑(南月廊) 9간(間)과 통천문(通天門) 등이 있고, 연희당에는 동월랑(東月廊) 5간(間), 남월랑(南月廊)10간(間), 북월랑(北月廊) 6간(間) 등이 둘러싸고 있다. 환경전・경춘선・함인정에는 환경전에 동월랑(東月廊) 12간(間), 남월랑(南月廊) 13간(間), 서월랑(西月廊) 12간(間) 등 유사한 규모의 월랑(月廊)이 3면(面)에 있으며, 경춘전주변에 10간(間)의 남월랑(南月廊)이 있다.

이들 주변의 행각・월랑의 규모와 동궐도의 그림을 대조해 보면 의궤의 기록과 동궐도의 그림이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두 자료에서 두드러지게 일치되지 않는 곳은 통명전 주변과 양화당 주변으로 통명전 주변은 소실된 후 일부 월랑이 남아 있는 곳으로 동궐도에 묘사되었고, 양화당 주변은 동남우상(東南隅上)의 전문(箭門), 연희당의 남월랑 10칸은 대체로 일치하나 나머지 부분은 간수(間數)나 건물위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인조(仁祖) 이후에 월랑(月廊)등에 대한 부분적인 개조가 있었던 점과, 월랑(月廊)에 대한 의궤의 간수(間數)의 표기방법(表記方法)을 해석하는 데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第3節 인경궁전각(仁慶宮殿閣)의 철거(撤去)와 자재(資材)의 전용(轉用)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경궁내전의 전각조성은 대부분 인경궁 건물을 철거하여 이

조(移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전각의 이조를 위하여 철거된 인경궁의 건물은 어떠한 것이며, 이조(移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方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경궁 전각의 철거

창경궁 수리를 위한 자재의 충당을 위하여 철거된 건물은 주로 인경궁의 재전에 있던 건물이며, 그밖에 일부는 경덕궁과 창경궁내의 건물도 포함되었다. 철거된 건물들은 대체로 유사한 규모로 창경궁내에 이조(移造)되었다.

인경궁의 건물철거에 대하여 창경궁수리소는 계사(啓辭)를 왕께 올려 「창경궁의 大內는 명정전・문정전・여휘당・취한정 외에 그 나머지 전각이 거의 燒毁되었습니다. 반드시 인경궁내의 전각을 철거하여야만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인경궁 北邊의 數處別堂의 材瓦로는 이루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왕(王)으로부터 대내전당(大內殿堂) 중에서 건물을 철거하여 이용(移用)할 것을 허락받았다. 또한 경덕궁(慶德宮)의 홍문관(弘文館)에 있던 장서각이 집을 비워두고 있어 이 건물도 철거할 것을 허락받았다.[14]

이렇게 하여 철거하게된 인경궁과 기타 건물들을 창경궁수리소의궤위 「인경궁전각철이질(仁慶宮殿閣撤移秩)」에 기록된 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靑瓦殿 5間 4面退
廣運堂 3間 4面退, 南行廊 4間, 北行廊 8間
無逸堂 3間 4面退
壽縷堂 5間 4面退 前行廊 15間
蘇基別堂 9間 前退
觀喜堂 12間 前後退
函仁堂 14間
獻箴堂 5間 前後退, 左右北行廊 11間
碧月堂南行廊 11間, 鳳儀門內南行廊 5間前退, 體
元門內行廊 15間, 內差備外水刺間 8間, 靑壁堂後
廚房3間前退, 廣壽堂 東月廊外行廊 3間, 延祥門
內月廊 6間 外月廊 4間
昌慶宮文明殿 5間 4面退, 內行廊 5間, 外行廊 15
間, 鳳瑞樓 5間 前後退, 龍興樓 5間前後退
慶德宮弘文館藏書閣 5間, 議政府內備邊司 12間前退

이상의 의궤에 기록된 철거 건물을 보면 대부분이 인경궁내의 전각과 부속행각・월랑이며, 그밖에 창경궁 문명전과 경덕궁 홍문관 장서각 등이 들어 있다.[15]

한편, 인경궁의 전각을 창경궁에 옮겨짓는 작업은 양쪽 건물의 용도나 규모가 비슷한 것을 대상으로 이건(移建)한 경우가 많이 눈에 뛴다. 표-1에 열거한 바와 같이 많은 전각들이 동일(同一)한 규모로 이조(移造)되었는데 예를 들면 창경궁의 양화당(養和堂)은 3간(間) 4면

14) 창경궁수리소의궤, 啓辭, 3月 28日條, 4月 3日條
15) 창경궁 문명전과 주변건물이 철거건물에 들어 있는 것은 검토를 요하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우선 창경궁을 수리하면서 창경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자재를 移用한다는 것이 납득키 어려운 점이다. 한편 궁궐지 등 조선시대의 궁궐관계 사료에는 창경궁에 문명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문명전이 창경궁내의 건물이라면 왜 철거되었는지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나 이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

퇴(面退)의 20간(間)건물로 인경궁의 같은 3간(間) 4면퇴(面退)의 20간(間)규모인 무일당(無逸堂)을 옮겼으며, 연희당(延禧堂)도 같은 규모의 광운당(廣運堂)을 옮겼고, 경춘전(景春殿) 역시 5간(間) 4면퇴(面退)의 28간(間)건물로 같은 규모인 수루당(壽縷堂)을 옮겼다. 환경전(歡慶殿)은 같은 창경궁내의 문명전(文明殿)을 옮겼다고 하였는데 두 건물의 규모는 각각 5간(間) 4면퇴(面退)의 28간(間)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전각은 건물규모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연경당(演慶堂)의 경우 3간(間)전퇴(前退)의 9간(間) 건물을 짓는데 5간(間)전후퇴(前後退)의 15간(間) 건물을 옮겨왔으며, 함인정(函仁亭)은 1간(間) 4면퇴(面退)의 9간(間) 건물인데 이를 위해 철거되 온 건물은 경수전(慶壽殿)의 후행각(後行閣) 5간(間)으로 부족한 4간(間)은 신조(新造)되었다. 한편 통명전(通明殿)의 경우는 5간(間) 4면퇴(面退)의 28간(間) 건물로 옮겨져 온 건물은 청와전(靑瓦殿)이었다. 그런데 청와전(靑瓦殿)에 대하여 의궤의 인경궁전각철이질에는 「5간(間)4면퇴(面退)」로 표기하여 통명전과 동일한 규모로 적었으나「일소(一所)」조에는 「청와전(靑瓦殿) 36간(間)」이라고 하여 통명전 28간(間)과 상이(相異)한 규모로 되었다. 이것은 청와전(靑瓦殿)의 경우 5간(間) 4면퇴(面退)에서 좌우 측면의 퇴(退)가 각 2간(間)이 되어 36간(間)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랑(月廊)·행각(行閣)의 경우에는 조성된 부분과 철거돼온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나 약간의 증감(增減)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통명전주변의 경우, 6곳의 월랑(月廊)·행각(行閣)중 동행각(東行閣)4간(間)과 동행각남변(東行閣南邊) 5간(間)은 조성간수(造成間數)와 철거된 간수(間數)가 일치하였으나 서행각(西行閣) 6간(間), 동월랑(東月廊) 7간(間)은 인경궁쪽이 1간(間)씩 적었고 서행각남변월랑(西行閣南邊月廊) 3간(間), 서책방(西冊房) 6간(間)은 인경궁쪽이 1간(間)씩 많았다.

여기서 한 가지 종래 잘못 알려져 온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것은 함인정(函仁亭)의 이건(移建)에 관한 것으로 종래 인조(仁祖) 11년(年)의 공역에서 창경궁 함인정(函仁亭)은 인경궁의 함인당(函仁堂)을 이건(移建)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는 사료(史料)의 오기(誤記)에 기인된 부정확(不正確)한 것이라는 점이다. 함인정(函仁亭)이 인경궁의 함인당(函仁堂)을 이건(移建)한 것이라는 기록은 궁궐지(宮闕志)(규장각소장, 서울특별시 사료(史料) 제3권 영인)로, 이책 창경궁편(昌慶宮編)의 함인정조(函仁亭條)에 「인조십일년(仁祖十日年) 계유인경궁함인당이건우차(癸酉仁慶宮函仁堂移建于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의 3소조(所條)에는 「함인정일간서면퇴구간(函仁亭一間西面退九間)」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경수전후행각오간이조사간신조(慶壽殿後行閣五間移造四間新造)」라고 하여 함인정 9간(間)은 인경궁의 경수전후행각 5칸을 이건하고 나머지 4칸은 새로 자재를 마련하여 지었다는 것이다. 한편 동(同) 의궤(儀軌)에는 인경궁의 함인당에 관하여는 「함인당십사간(函仁堂十四間)」이라고 적고 1소(所)의 조성건물가운데 「서책방육간후퇴(西冊房六間後退)」를 짓기 위하여 함인당대청전퇴(函仁堂大廳前退) 3간(間)과 헌잠당온돌(獻箴堂溫堗) 4간(間)을 이조(移造)하였으며, 동행각남변(東行閣南邊) 5간(間)을 짓기 위하여 함인당서온돌(函仁堂西溫堗) 4간(間)과 서연청북월랑(西筵廳北月廊) 1간(間)을 이조(移造)하였다고 기록하여 함인당(函仁堂)의 대청(大廳)과 서온돌(西溫堗)이 각각 통명전의 서책방(西冊房)과 동행각(東行閣)으로 이조(移造)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두 사료(史料)의 차이중에서 궁궐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고 창경궁수리소의궤의 기록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근거는 창경궁수리소의궤는 이 공역(工役)이 있었던 당대(當代)에 작성된 당상(堂上)의 수결(手決)을 받은 공문서(公文書)이며, 구체적으로 각 건물의 간수(間數)나 대청(大廳)·온돌(溫堗) 등

바닥구조를 밝히고 그 이건대상(移建對象)을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궁궐지는 작성된 시대도 공역(工役)이 있은 때로부터 약 150년후인 순조년간(純祖年間)이며, 기술내용(記述內容)도 구체적인 것이 없이 다만 함인정(函仁亭)이 함인당(函仁堂)을 이건(移建)한 것이라고만 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두 전각의 명칭이 유사한데서 후대(後代)에 막연히 추정하여 기록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함인정(函仁亭)은 창경궁수리소위궤에 기록된 대로 9간중(間中) 5간(間)은 인경궁의 경수전후행각(慶壽殿後行閣)을 이조(移造)하고 나머지 4간(間)을 신조(新造)한 것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2) 철거자재(撤去資材)의 전용(轉用)

인경궁의 전각을 창경궁에 이조(移造)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요자재(所要資材)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새로 조성된 창경궁의 전각은 비록 인경궁의 건물을 이건(移建)하였다고는 하나 창경궁 본래의 규모나 건물형태를 크게 변경(變更)시키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창경궁수리소의궤에는 창경궁의 각 전각을 짓기 위하여 인경궁에서 뜯어온 자재와 새로이 마련하여 조달한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석재(石材)는 대부분 창경궁에 본래 남아 있던 것을 재사용(再使用)하였고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목재(木材)와 기와는 거의 대부분 인경궁에서 가져온 재목을 이용하였으며, 창호(窓戶)는 절반 정도는 인경궁 것을 쓰고 나머지는 새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초석(礎石) 등 석재 대부분이 본래의 것을 재사용(再使用)하였다는 점에서 건물의 간수(間數)나 규모에 큰 변동(變動)이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창호(窓戶)도 절반정도가 새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인경궁의 건물을 완전(完全)히 이건(移建)한 것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해 진다. 이제 의궤에 기록된 자재사용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창경궁수리소위궤에는 각 전각의 조성공역(造成工役)을 5개의 작업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였고, 자재의 종류나 수량도 나누어서 적었는데 이를 모두 소개하기는 번잡하므로 제1소의 소요자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소의 작업은 인경궁의 청와전(靑瓦殿)과 주변 건물을 철거하여 창경궁의 통명전(通明殿)과 주변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이 공역에서 인경궁에서 뜯어온 자재와 새로이 전각조성을 위해 준비하거나 제작된 자재를 표로 대비한 것이 표-2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통명전(通明殿)의 공역(工役)에서 인경궁에서 옮겨와 활용(活用)된 자재에는 석재(石材)는 부속자재 일부에 불과하며 목재(木材)의 대부분, 기와의 대부분 그리고 창호의 절반가량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석재(石材)는 석주(石柱)가 40개, 계석(階石)이 289개, 교석(橋石)이 30개, 이기석(耳機石)(귀틀석)이 4개 월내석(月乃石)이 27개뿐이며, 건물조성에 필요한 주초석은 한 개도 들어있지 않다.

調達方法 / 資材種類		仁慶宮撤去材	新材	備考
石材	石柱	40개		
	階石	289개		
	月及石	27개		
	橋石	30개		
	耳機石	4개		
	欄干石		11개	(浮石所取來)
	欄干石柱		2개	(〃)
木材	木材	2,219.5조	223조	
	板材	1,710입	66입	
	棟木	1,929개	41개	
窓戶	立佐耳	59척	30척	
	密戶	8〃	32〃	
	擧窓	2〃	1〃	
	分閤	17〃		
	廣窓	11〃	2〃	
	獨窓	8〃		
	戶	4〃	48〃	
	雙窓	16〃		
	障子	3〃	24〃	
	烟窓	2〃	16〃	
	獨戶	15〃	3〃	
	疎戶	4〃		
	壁莊窓	2〃		
	斜窓		38〃	
기와		40,619장	3,400장	(瓦署進排) 青瓦 3,075장 用餘
方磚		1,000장	2,400장	(瓦署進排)

표-2. 창경궁수리 제1소(통명전 등)의 소요자재 출처

목재(木材)는 「구재목대소(舊材木大小)」로 2,219조(條), 「구판대소(舊板大小)」로 1,710입(立), 「구연목(舊椽木)」, 1,929개로 되어 있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재목이 대부등(大不

等) 2조(條) 소부등(小不等) 18조(條), 누주(樓柱) 58조(條) 등과 체목(棣木) 41개, 판재 66입으로 인경궁에서 뜯어온 재목이 전체 소요목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목이 90.8%, 판재(板材)가 96%, 연목(椽木)이 98%에 달한다. 기와에 있어서는 40눌(訥) 619장(張)이 인경궁에서 가져왔고 새로 2눌(訥) 150장(張)이 마련되었다.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통명전(通明殿)과 그 부속건물을 조성하는 데에는 전체 소요자재의 90% 이상의 목재(木材)·기와, 절반 가량의 창호(窓戶) 등이 인경궁에서 가져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16] 그러나 초석(礎石)은 전량(全量)이 구재(舊材)를 재사용(再使用)하는 것이었고, 창호(窓戶)도 절반 이상이 새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제2소의 양화당(養和堂)·연희당(延禧堂)·연경당(演慶堂)의 조성이나 제3소의 환경전(歡慶殿)·경춘전(景春殿)·함인정(函仁亭)의 조성에서도 자재의 종류나 이용된 수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제2소와 제3소에서도 창호(窓戶)는 절반 정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목재중(木材中)에서는 불과 백여조(條)가 새로 마련되었으며, 초석(礎石)은 구재(舊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자재의 소요량에서 판단할 때 창경궁의 전각조성은 비록 인경궁 전각의 이조(移造)라고는 해도 창경궁 본래의 규모나 형태를 크게 잃지 않으면서 이룩되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부언(附言)한다면 창경궁은 소실되고 세월이 얼마 흐르지 않아 재건(再建)되었다는 점과 인경궁의 내전건물이 본래 창경궁 내전을 모방하여 지어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창경궁은 인조(仁祖) 2년(年)에 소실되었었는데, 9년 후인 인조(仁祖) 11년(年)에 재건(再建)되었다. 이곳은 궁내(宮內)이므로 소실된 후에도 창경궁 내전은 초석등 석재(石材)등은 그대로 보존(保存)되었을 것이며, 9년 후(年後)에 재건공역(再建工役)을 하면서도 잔존(殘存)하고 있던 기단이나 초석을 크게 변동(變動)시키지 않고 공역(工役)을 이루었을 것이다. 인경궁(仁慶宮)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인용한 바와 같이 침전을 경춘전(景春殿)·환경전(歡慶殿) 등의 예에 따라 지었다고 하였으므로 인조(仁祖) 11년(年)의 이건(移建)때에 이들 건물이 그 모형(母型)이 되었던 창경궁에 옮겨졌던 것이며 그 만큼 창경궁 전각 자체의 큰 변개(變改)가 없이도 이조(移造)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한편, 자재의 전용(轉用)과정에서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은 통명전 건물의 지붕 기와가 인조 11년의 재건때에 청와(靑瓦)로 덮여 졌다는 것이다. 통명전이 인조(仁祖)때에 청와(靑瓦)를 덮은 건물이라는 것은 궁궐지나 그 밖의 다른 문헌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으나 인조 11년의 창경궁수리소위 궤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건물은 인조 11년(年) 재건될 때 청와(靑瓦)를 덮었다가 정조 14년에 소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에 관한 창경궁수리소의궤의 기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명전은 표-1에 적은 바와 같이 인경궁의 청와전(靑瓦殿)을 이건(移建)하여 세웠다. 인경궁의 건물명이 청와전(靑瓦殿)이라면 이 건물은 바로 청와(靑瓦)가 덮인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통명전 공역을 맡은 수리소 제1소의 자재(資材)에 관한 기록에는 인경궁에서 철거해 온 자재가운데 기와는 모두 40,619장이며, 이것으로 건물조성이 다 안되어 3,400장은 와서(瓦署)에서 얻어서 썼다고 하였다(표-1 참조). 그런데 이 때 청와(靑瓦) 3,075장은

16) 다만 표에 나타난 인경궁에서 옮겨온 자재 수량이 실제 공사에 모두 소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운반 중 파손되거나 사용에 부적합하여 폐기된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파손 또는 폐기를 감안하더라도 새로 마련된 자재의 수량이 窓戶를 제외하고는 매우 적은 양이므로 木材와 기와에 있어서는 절대량을 인경궁에서 뜯어온 자재에 의해 충당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쓰고 남았다고 적었다. 통명전은 28칸 건물이고 청와전은 36칸 건물이었으므로 다른 기와는 부족하였으나, 청와는 12칸 정도의 차이만큼 남았던 것이다.[17] 무엇보다도 확실한 기록은 창경궁수리소의궤의 계사(啓辭) 4월(月) 18일조(日條)로 여기에 「통명전의 기와는 수일안에 올리게 되었는데 靑瓦는 성질이 견고치 못하므로 車馬로 운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훈련도감의 군인을 빌리어 「排立替傳」하는 것이 便當할 것입니다」고 하여 왕(王)이 「사세가 그러하다면 啓辭대로 하도록하고 都監에 명하여 糧饌을 지급토록 하라」고 명하는 기사가 있다. 배립체전(排立替傳)이란 아마도 한 사람씩 줄을 서서 기와를 손으로 받아 옆으로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말로 보이며, 청와(靑瓦)가 약해서 이렇게 운반하여 통명전에 올렸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통명전(通明殿)은 인조(仁祖) 11년(年) 재건(再建)시에 청와(靑瓦)로 덮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第4章 인조(仁祖) 25年의 창덕궁(昌德宮) 조영(造營)

第1節 창덕궁(昌德宮)의 수리공역(修理工役)

창덕궁의 수리는 창경궁에 비하여 공사규모가 월등히 큰 것이었다. 따라서 이 공역에는 도감이 설치되고 창경궁때보다 훨씬 많은 인원(人員)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공사(工事)는 창경궁때와 비슷한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마무리되었다.

창건궁의 수리공사는 인조(仁祖) 25년(年)의 6월(月) 15일(日)에 도감(都監)이 설치되고, 6월(月) 28일(日)부터는 인경궁의 전각 철거가 시작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10월(月) 26일(日)에는 필역(畢役)을 고(告)하였다.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의하면 이 해 6월(月) 28일(日)에 침전(寢殿)의 정초(定礎)·수주(竪柱)·상량(上樑)의 길일(吉日)과 인경궁(仁慶宮) 철거(撤去)의 길일(吉日)을 일관(日官)이 정(定)하여 왔는데 그 날자는

仁慶宮撤毁 吉日, 7月 3日 辰時

正殿 定礎 吉日, 7月 25日 午時

竪柱上樑 吉日, 8月 10日 巳時

였다. 정전(正殿)은 대조전(大造殿)을 가리킨 것이지만 그밖에 희정당(熙政堂)·선정전(宣政殿) 등도 같은 날자에 정초(定礎)·수주(竪柱)·상량(上樑)을 하도록 하였다. 이 일정(日程)은 이 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질없이 시행되었으며, 10월(月) 26일(日)에는 도감(都監)은 「수리지역수완(修理之役垂完)」을 보고하고 수 일 내에 창덕궁에 왕(王)이 이어(移御)할 수 있음을 알리었다.

창덕궁의 공사가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이 공역에 많은 인원(人員)이 투입되었고 공사(工事)가 이건(移建)이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창덕궁 공사에는 창경궁때와는 달리 도감(都監)이 설치되고 전국에서 공장(工匠)이 동원되었으며, 승려(僧侶)·군인(軍人)들 까지 공역(工役)에 가담되었던 것이다.

창덕궁의 수리가 논의되면서 바로 정해년(丁亥年)(인조(仁祖) 25년(年)) 6월(月) 13일(日)에는 이 일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수리도감(修理都監)이 설치되고 그 최고책임자로는 도제조

17) 12칸의 차이에 3,075장이 남았다면 1칸 크기의 지붕에는 약 257장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된다. 이 숫자는 암키와와 숫키와를 합한 것으로 본다면 1칸을 사방 10尺으로 보고 기와 크기를 1尺정도로 보면 대체로 12칸에 필요한 기와 숫자로 3,000여장이 된다.

(都提調)와 그 밑에 제조(提調)가 조직되어 도제조(都提調)에는 영의정(領議政)이던 김자점(金自點)이 임명되고 제조(提調)에는 각 조(曹)의 판서(判書)들이 임명되었다.

6월(月) 15일(日)에는 도감사목(都監事目)을 정하여 공사(工事)의 지침을 세웠는데, 19개조의 도감사목에는 감독관의 직위・인원수・역할과 공장의 소집대상, 경비이 조달과 지급원칙 등이 마련되었다. 우선 감독관의 구성을 보면 「도청(都廳)」「낭청(郎廳)」「감조관(監造官)」「영역부장(領役部將)」으로 되어 창경궁때보다 확대되었다. 도청(都廳)은 사간원(司諫院)과 의정부(議政府)에서 차출되고 낭청(郎廳)은 5개의 작업소와 인경궁분소 등을 책임만는 자들로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종(從) 5품(品)), 호조정랑(戶曹正郎)(정(正) 5품(品)), 병조정랑(兵曹正郎)(정(正) 5품(品)) 등이 임명되었으며, 감조관(監造官)은 1소(所)에서 5소(所) 및 노치소(爐治所) 등에 분임(分任)되었는데 7품(品)에서 8품(品)사이의 문(文)・무관(武官)들이었다. 그 아래에 관직(官職)이 없이 공역(工役)을 감독하는 영역부장(領役部將)들이 각 소마다 약간명이 임명되었다.

공장(工匠)은 도성(都城)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지방의 각 군현에서도 동원되고 승장(僧匠)도 다수 동원되었다. 공장(工匠)의 동원에 대하여 도감사목(都監事目)에는 「각 항의 匠人은 소속 當部와 漢城府가 불러낼 것이며, 上司衙門과 여러 宮家의 奴子 및 砲手・殺手나 別監의 皂隷・羅匠은 물론 불러내고 地方에 사는 匠人은 都監이 公文을 보내어 불러낼 것」을 명하였다.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의 이문질(移文秩)에는 정해(丁亥), 6월(月) 15일(日)부터 7월(月)초 사이에 도감(都監)이 각 지방관(地方官)에게 목수(木手)・석수(石手)・개장(盖匠)・니장(泥匠) 등을 보낼 것을 재촉하는 공문(公文)이 여럿 실려 있다. 그 중 6월(月) 15일(日)에 경기(京畿)・강원(江原)・강화(江華)・개성(開城)・훈련도감(訓練都監) 등에 보낸 것을 보면 「인경궁의 材瓦를 移造하는 창덕궁수리 大役이 오늘 開基하였다. 무릇 大小事가운데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것은 諸色匠人에 있으니 前의 營造때 (창경궁 役事)보다 늘어났다. 使役할 木手 등에 대한 關文을 後錄하니 關文이 도착하는 즉시 所居宮은 사람을 따로 정하여 한편으로 공장의 이름을 적어 올려보내고 한편으로는 監官色吏를 정하여 이달 25일 안에 주야를 가리지 말고 都監에 (공장을) 도달토록 할 것이다. 한 명이라도 누락이 되면 該邑의 守令은 重責을 면치못할 것이니 속히 거행하여 未及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공사에 종사한 工匠의 직종과 숫자를 보면 木手가 291명, 석수(石手)가 220명, 이장(里長)이 44명, 칠장(漆匠)이 54명 화원(畵員)이 126명이며, 그밖에도 9직종의 공장 23명이 있다. 이 중 木手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67명이고 나머지 224명이 지방에서 왔고 석수(石手)도 60명이 서울 153명이 지방출신이고 화원(畵員)가운데는 서울은 불과 6명이고 117명이 지방에서 왔는데 그 대부분은 승려(僧侶)였다. 이 인원수는 창경궁공사에 비하면 대체로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창덕궁공사가 그만큼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창덕궁수리공사에 단순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동원된 자들은 두 부류(部類)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모군(募軍)이며, 또 하나는 승군(僧軍)이다.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모군(募軍)의 동원방법이나 대상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다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노임의 액수를 적었는데 매명(每名)이 1삭(朔)에 가포(價布) 1필(匹)과 미(米) 10두(斗)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식량을 덜 원한다면 가포(價布) 2필(匹)에 미(米) 6두(斗)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18] 그런데 이것은 창경궁 공사때의 가포(價布) 2필(匹)에 미(米) 10두(斗)에 비하여 줄어든 것으로 당시에는 모군(募軍)의 노임은 많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군의 동

18) 昌德宮修理都監儀軌, 甘結秩, 丁亥 6月 16日條

원된 인원수(人員數)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개 한 작업소에서 공사초기에 50명(名)정도였다가 중간에는 200명(名)을 사역했다고 한다.

승군(僧軍)의 동원에 대하여는 공사 초두(初頭)인 6월(月) 15일(日)에 지방 각 도에 동원시킬 인원수를 배정하였는데 의궤에는 「修理하는 役軍은 지금 모집하여 얻을 것이나 礎石을 운반하는 데에는 僧軍을 써야만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僧徒는 놀고 먹으며, 農民과는 다르니 每朔에 1千명을 下三道와 京畿·江原에서 赴役케 하고 이 때 食糧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京에서 料米를 지급하여 불러내도록 함이 어떠하올지」하고 왕(王)께 물어 윤허(允許)를 얻는 기사가 있다. 이렇게 하여 전라도(全羅道) 1,100명(名), 경상도(慶尙道) 900명(名), 강원도(江原道) 220명(名), 충청도(忠淸道) 600명(名), 경기도(京畿道) 220명(名)으로 도합 3,040명(名)을 부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의 공역에 동원되었는데 우선 각 지방에서 승려를 동원하기 어려워 민정(民丁)을 대신 보내는 폐단도 생기고 공사에서 석역(石役)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궤의 기록에는 다만 제1소에 500명(名)의 승려가 15일(日)간 부역(赴役)한 것만이 적혀 있다.

이 밖에 역군(役軍)으로 도방군(到方軍) 600명(名)이 2일간(日間) 부역(赴役)하여 와력(瓦礫)과 구토(舊土)를 부출(負出)하고 수정(修淨)하는 일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창덕궁수리공역은 공사의 조직에서도 규모가 컸고, 전국 각지에서 공장이 동원되었으며, 일반 모군(募軍)외에 승려(僧侶)와 군인(軍人)들까지 동원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대규모의 인력동원에 힘입어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第2節 창덕궁(昌德宮)의 조성전각(造成殿閣)

창덕궁의 수리공역(修理工役)은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소실된 여러 전각을 재건(再建)하는 것이었는데 인조(仁祖) 25년(年)에 재건(再建)된 건물은 외전(外殿)의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과 주변 행랑, 내전(內殿)의 정전(正殿)인 대조전(大造殿)외에 희정당(熙政堂)·집상당(集祥堂)·징광루(澄光樓)·보경당(寶慶堂) 등이며 , 그밖에 인정전(仁政殿)의 동월랑(東月廊)·승정원(承政院)·인정문외남월랑(仁政門外南月廊) 등이었다. 이 때의 전각재건은 대체로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소실되었던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었다고 보이는데 내전(內殿)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자재는 대부분 인경궁 것을 활용(活用)하였으나 초석(礎石)은 구재(舊材)를 그대로 이용(移用)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새로 건물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 인조(仁祖) 25년(年)의 창덕궁 조성전각과 인경궁철거 전각

표 3. 仁祖 25年의 창덕궁 조성전각과 인경궁철거 전각

作業所	昌德宮 造成殿閣	仁慶宮 撤去殿閣
第1所	大造殿 45間內 東西翼室 東翼閣退井 6間, 南月廊退井 28間半, 西翼閣退井間, 西月廊退井 9間 集祥堂 20間, 行閣 2間半 澄光樓上下層井 40間, 西月廊 10間, 前行閣 3間 玉華堂退井 10間半 靜默堂退井 10間半, 西邊階上月廊 16間, 飯色間 2間, 外行閣 3間(215間)	慶壽殿 45間 東月廊退井 19間半, 南月廊退井 22間半, 南行閣 6間, 東行閣 3間 慶寧殿南行廊 18間 作平 36間, 東行廊 4間, 西行廊 13間, 西行閣 2間 弘政殿 24間 重暉堂 9間, 燒廚房 7間半, 連付舍 1間, 內帑庫 12間, 酒茶房 8間半, 前行廊 2間 正順堂東行廊 5間, 南付舍 1間 光政殿南月廊 10間 十字閣後平行廊 1間 崇德堂行閣 6間, 北別堂 20間 1間門 4座
第2所	熙政堂 15間 八雀 承明門內行閣井 7間, 西月廊 23間, 南月廊 6間, 樓閣退井 14間半, 外南月廊退井 19間 師傅廳退井 7間半 別監廳燈燭房井 16間 宣化門俠門井 2間, 內班院 10間 師傅廳 1間門 1, 內班院 1間門, 月廊退井 27間, 內班院 南行廊退井 17間, 協陽門 1間 東西俠室井 7間, 宣禮門 1間, 同仁門 1間, 廁間 1間(177間)	和政堂退井 21間, 行閣 3間, 西月廊退井 14間, 南月廊退井 18間 延化門 6間, 西外月廊退井 9間 玉辰樓退井 10間, 東付舍 2間, 畫士廳 16間, 內班院 11間, 行廊 13間, 長房退井 20間 承政院 行廊 5間, 賓廳前廊 3間 水閣西邊月廊 2間, 光政殿北月廊 7間, 會通門 1間, 端陽門 2門, 延祥門 1間 冲默堂退井 8間 2面 八雀, 行廊 7間
第3所	寶慶堂 3間 兩面退井 9間 泰和堂 6間 前退作平 12間 昭德堂 4間 前退井作平 8間 泰和堂南月廊 7間, 東月廊 2間, 北行閣 1間 昭德堂南月廊 5間, 東月廊 11間 燒廚房 5間前退井作 10間, 小燒廚房西行閣 10間, 中燒廚房 4間 前退井作 6間半, 下燒廚房 3間 前退井作 4間半 廁間 4間, 窓差備 4間(111間)	慶極堂 退井 9間 仁德堂退井 12間, 西月廊 5間 慶寧殿 西月廊 4間 福寧殿東月廊 6間, 南行閣 7間, 西行閣 8間 崇德堂 東月廊 7間, 內帑庫北邊半退 2間 作平 1間 中政門外北月廊 5間 作平 10間 外南月廊 10間作平 20間 尙衣院 衣樹房退井 6間 慶寧殿水刺間 5間, 連付舍 1間 廂庫弓房井 24間, 隣德堂東月廊 6間, 正順堂前廁間 4間, 興慶門 1間, 1間門 5座
第4所	宣政殿 9間 北月廊 11間, 講華堂, 集陽門 1間 1角門 1間, 夜對廳以下西月廊合 掌家井 20間, 禮明門 1間 仁和門行閣 7間, 俠門 1間, 東月廊 16間, 東月廊東邊 5間, 內南月廊 11間, 中行閣 7間, 外南月廊 14間, 外行閣 3間, 外行閣東邊 3間 制義門前 1角門 1間 神佑門 1間(114間)	光政殿 9間 內南月廊 5間, 西月廊 8間, 北月廊 11間, 南月廊 5間, 南行閣 1間, 東月廊 12間, 內橫閣 1間, 中行閣 6間, 外行閣 12間 弘政殿 北月廊 14間(合掌家) 弘政門東月廊 7間, 外南月廊 5間(合掌家), 中政門南月廊 16間, 外政門南月廊 6間, 又南月廊 8間 水閣 4間

<page 25 표>

第5所	仁政殿東月廊 14間 作平 28間, 南月廊 6間 承政院 16間, 東廊 5間, 前廊 3間, 北廊 1間, 合 25間, 注書廳 9間 臺諫廳 4間, 待接廳 2間, 政院後廊 2間 合 8間, 延英門 1間 東西俠廊 3間, 外司饔院 6間, 端陽門 1間, 內弓房 7間 作平 14間, 前廊 3間, 內司饔院 6間, 司謁房 3間, 出入者內官廳 10間 肅章門 前後通 6間 王子間安廳 5間 作平 10間 仁政門外南月廊 8間, 賓廳外廊 2間, 精抄軍堡 2間, 砲手軍堡 4間, 傳漏軍堡 1間(200間)	弘政門外南月廊 28間, 北月廊 7間, 承政院 28間, 注書廳 4間, 臺諫廳 6間, 體元門月廊 10間, 外司饔院 34間, 內司饔院樓廊 24間 弘政門前後通 6間 尙衣院樓廊 7間, 六六門 1間 興慶門平月廊 6間, 連付舍 2間 十字閣後平廊 1間

<page 26 표>

수리공역(修理工役)은 역시 5개의 작업소(作業所)로 나뉘어 이루어졌으며, 각 소(所)가 분담하여 조성(造成)한 전각의 명칭과 규모는 표-3과 같다. 즉, 제1소는 침전(寢殿)의 정전(正殿)인 대조전(大造殿)과 동서익실(東西翼室), 월랑외(月廊外)에 집상당(集祥堂) 징광루(澄光樓)·옥화당(玉華堂)·정묵당(靜默堂) 및 주변 월랑(月廊)이며, 제2소는 희정당(熙政堂)과 주변 월랑(月廊) 그리고 소전청(所傳廳)·내반원(內班院) 및 주변 월랑(月廊), 제3소는 보경당(寶慶堂)·태화당(泰和堂)·소덕당(昭德堂) 및 그 월랑(月廊)과 각 소주방(燒廚房)이며, 제4소는 외전(外殿)의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과 주변 월랑(月廊), 제5소는 인정전동월랑(仁政殿東月廊)과 서월랑(西月廊)일부, 승정원(承政院), 대간청(臺諫廳), 인정문외남월랑(仁政門外南月廊) 등으로 외전(外殿)의 정전(正殿)주변의 월랑(月廊) 등을 각각 조성하였다. 이때 조성된 전체 건물 칸수는 도합 817간(間)이었다.

각 작업소가 조성한 건물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제1소에서 3소까지는 내전의 침전과 주변건물을 맡았고, 제4소는 외전의 편전(便殿) 일곽 제5소는 외전의 정전주변을 맡은 것으로 나타난다.

창덕궁수리도감의궤는 조성된 각 전각의 규모와 그 바닥구조를 밝혀 놓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造殿 45間(御間 抹樓 3間 鳳班子前排, 4面退
抹樓 20間, 東西翼室 溫堗 12間)
集祥堂 20間(御間 抹樓 4間 鳳班子, 退抹樓 14
間, 溫堗 2間 紙班子)
澄光樓上下層幷 40間(下層 御間 抹樓 4間 牧丹班
子, 退抹樓 14間, 溫堗 2間 紙班子, 上層 抹樓 4間
牧丹班子, 退抹樓 13間半)
玉華堂退幷 10間半(抹樓 7間, 溫堗 3間半)
靜默堂退幷 10間半(抹樓 3間半, 溫堗 3間)
熙政堂 15間(東西溫堗 6間, 抹樓 9間 鳳班子紙
班子等具)
師傳廳退幷 7間半(溫堗 1間半, 抹樓 6間)
別監淸澄燭房幷 16間(溫堗 4間, 抹樓 7間, 虛間
5間)
寶慶堂 3間 兩面退幷 9間(溫堗 3間 紙班子抹樓
6間 板班子則 1間半)
泰和堂 6間 前退幷 12間(溫堗 2間, 抹樓 9間, 門
間 1間)
昭德堂 4間 前退幷 8間(溫堗 2間, 抹樓5間, 虛
間 1間)
宣政殿 9間

위의 기록은 인조(仁祖) 25년(年)에 재건된 창덕궁 각 전각의 규모는 물론 그 바닥구조를 간수(間數)에 맞추어 명기(明記)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내전(內殿)의 각 침전(寢殿)의 바닥이 온돌(溫堗)과 마루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우선 건물의 규모를 살펴

보면, 대조전(大造殿)은 45간(間)이라고 하였으며, 어간(御間) 3간(間)에 4면(面)에 퇴간(退間)을 두르고 다시 좌우에 익실(翼室)이 있다고 하였다. 이 건물은 동궐도(東闕圖)에도 본채의 좌우에 부속건물이 붙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 집상당(集祥堂)은 4간(間)의 어간(御間)에 퇴(退)가 14간(間)이고 여기에 온돌 2간(間)이 더하여, 20간(間)이 되었다고 한다. 누(樓) 건물인 징광루(澄光樓)는 상하(上下)층을 합하여 40간(間)이라고 하였는데, 바닥 구조를 적으면서는 하층 20간(間) 상층 17.5간(間)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남기고 있다. 그 밖에 옥화당(玉華堂)·정묵당(靜默堂)·희정당(熙政堂)·태화당(泰和堂) 등은 10간(間)에서 15간(間)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의 건물들이다. 이 중 희정당(熙政堂)은 조선후기인 19세기경에는 왕(王)이 편전(便殿)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후에 규모를 크게 늘렸으나 인조(仁祖)때에는 규모도 크지 않고 내부의 구성도 어간(御間)·퇴간(退間) 등으로 나뉘어지지도 않은 소규모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은 9간(間)으로 되었는데 동궐도(東闕圖)에서 정면 3간(間) 측면 3간(間)의 일치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바닥의 구조에 대하여는 대조전(大造殿)과 집상당(集祥堂)은 어간(御間)과 퇴간(退間)은 마루를 깔고 주변에 온돌(溫堗)을 두었으며, 옥화당(玉華堂)·정묵당(靜默堂)·희정당(熙政堂)·보경당(寶慶堂) 등의 건물도 반드시 온돌과 마루로 바닥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온돌구조가 17세기에는 궁궐의 침전에까지 보급되어있었음을 밝혀주는 주목되는 기록이다.

한편 각 건물의 주변에는 수많은 월곽(月廓) 등이 있어 전각을 둘러쌓고 있었는데 이 중 한 두부분만 보면,

大造殿의 주변에는
東翼閣退幷 6間(抹樓 5間, 溫堗 3間)
南月廊退幷 28間半(抹樓 12間半, 溫堗 6間)
西翼閣退幷 9間(抹樓 8間半, 溫堗 3間半)
西月廊退幷 9間(抹樓 3間)
宣政殿주변에는,
北月廊 11間(溫堗 3間, 抹樓 5間半, 地庫 1間,
門 1間半)
夜對廳以下西月郎掌家幷 20間(夜對廳溫堗 1間,
抹樓 2間, 後抹樓 1間, 觀光廳 7間, 正義門 1間,
外合掌家 4間內 3間抹樓, 虛間)
仁政殿주변에는
仁政殿東月廊 14間(間光範門 1間, 溫堗 1間, 抹
樓 4間)
仁政門外南月廊 8間(溫堗 1間, 抹樓 6間)

등이 있었다. 이들 월랑(月廊)은 대체로 중요 전각의 사방에 세워지거나 담과 연결되어 내전의 각 전각이 독립된 외부공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여러 곳에 출입문(出入門)을 내어 각 전각을 연결시켜 주었다. 이들 월랑 역시 바닥에는 온돌이나 마루가 깔리었고 일부는 허간(虛間)으로 되어 있었다.

第3節 인경궁(仁慶宮)전각(殿閣)의 철거(撤去)와 자재(資材)의 전용(轉用)

(1) 인경궁전각(仁慶宮殿閣)의 철거(撤去)

창경궁(昌慶宮)의 전각조성(殿閣造成)에서도 창경궁(昌慶宮)에서와 같이 인경궁(仁慶宮)의 건물이 철거되어 이건(移建)되었는데 창덕궁의 수리(修理)는 공사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경궁에서 많은 건물이 뜯기어졌다. 창덕궁의 수리를 위해 철거된 인경궁의 전각 명칭과 규모는 이미 앞에서 제시한 표-3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창덕궁에 새로 지어진 건물과 이를 위해 인경궁에서 철거된 건물을 건물별로 명시하지 않고 각 작업소별로 일괄하여 기록하여 놓았다. 따라서 창경궁때와 같이 구체적으로 인경궁의 어느 건물이 창덕궁의 어떤 건물로 이건(移建)되었는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도록 되었다. 다만 건물의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 이건(移建)관계가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대체적인 추정을 가능케 한다.

우선 이건(移建)관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 제1소의 대조전(大造殿) 45간(間)을 짓기 위해 인경궁의 경수전(慶壽殿) 45간(間)을 철거한 것, 제3소의 보경당(寶慶堂) 9간(間)을 위해 경극당(慶極堂) 9간(間), 태화당(泰和堂) 12간(間)을 위해 인덕당(仁德堂) 12간(間)을 철거한 것과 제4소의 선정전(宣政殿) 9간(間)을 짓기 위해 인경궁의 광정전(光政殿) 9간(間)을 철거한 것이 있다. 위의 경우는 건물의 규모도 동일(同一)하고 전(殿)·당(堂)의 명칭이 일치되는 점에서 양쪽의 건물이 이건(移建)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쪽의 건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1소의 경우, 창덕궁에는 집상당(集祥堂) 20간(間), 징광루(澄光樓) 40간(間), 옥화당(玉華堂) 10간반(間半), 정묵당(靜默堂) 10간반(間半) 등이 세워지는데 철거된 인경궁 건물은 홍정전(弘政殿) 24간(間), 중휘당(重暉堂) 9간(間)외에는 모두 행랑(行廊), 월랑(月廊) 등이다. 제2소에서도 희정당(熙政堂) 15간(間), 사전청(師傳廳) 7간반(間半)과 주변의 월랑(月廊), 문(門) 등을 짓는데, 철거된 건물은 화정당(和政堂) 21간(間)에 연화문(延化門) 6간(間), 옥진루(玉辰樓) 10간(間), 충묵당(沖默堂) 8간(間) 등이다.

한편 제4소와 5소에서는 비록 건물이 일치(一致)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 궁궐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들로 이건(移建)되었던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4소에서 창덕궁 선정전과 주변 행각 출입문(出入門) 등을 세우는데 철거된 인경궁건물은 광정전과 주변 행각 홍정전(弘政殿) 행각, 홍정문(弘政門) 등이며, 5소의 창덕궁 인정전 동월랑·승정원 ·대간청 등을 위해서는 인경궁의 홍정문(弘政門) 월랑, 승정원, 대간청, 상의원등으로 유사한 기능의 건물들로 이건(移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창덕궁의 수리의 경우에는 인경궁 건물의 이건(移建)에 있어서 일부는 동일한 규모의 이건(移建)도 있었으나 대개는 다른 규모의 건물로 이건(移建)되었다. 그러나 건물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것들끼리 이건(移建)되었는데 내전(內殿)의 건물들은 인경궁의 내전 건물을 이건(移建)하고 외전의 건물은 인경궁의 외전건물을 이전하였음이 드러난다.

한편, 인조(仁祖) 25년(年)의 창덕궁 재건과 인경궁 건물의 철거는, 인경궁에 관한 한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종래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경궁의 전각 명칭과 규모가 드러났다는 점과, 이 때의 건물철거로 인경궁은 궁궐로써의 면모를 거의 상실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경궁(仁慶宮)에 대하여는 한성국(韓星國)의 「인경궁고(仁慶宮考)」[19]에서 그 창건배경이나 동기·공사에 종사한 인원 등이 상세히 검토되었으나 취급사료(史料)가 왕조실록(王朝

實錄)에 국한되어 인경궁내에 어떠한 건물들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못하였고 다만 정문(正門)이 명화문(明化門)이었다는 점과 궁내에 흠명전(欽明殿)과 함인당(函仁堂)이 있음을 밝혀내었었다. 그런데 앞장에서 본 창경궁수리와 이 장에서 다룬 창덕궁수리 그리고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저승전수리에서 인경궁내의 수많은 건물명과 그 규모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각 의궤에 기록된 건물의 명칭만으로는 인경궁의 각 건물이 용도가 무엇이며,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정전(正殿)이 어느 건물이며, 내전(內殿)의 정침(正寢)과 부속전각과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점은 앞으로 더 검토되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20]

건물의 철거규모로 보아서는 인경궁은 인조(仁祖) 25년(年)에 창덕궁으로 건물들이 이전되고, 이때 동궁(東宮)건물까지 철거되었으므로 궁궐이 면모는 거의 상실하였다고 보여진다. 문헌상(文獻上)으로는 아직 정문(正門)인 명화문(明化門)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었지만 내전(內殿) 외전(外殿)의 대부분의 건물은 이미 사라졌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인조(仁祖) 25년(年) 이후에는 인경궁에 대하여는 인조(仁祖) 26년(年)에 홍제원(弘濟院)을 짓기 위해 건물을 철거했다는 기록이 있는[21] 외에는 뚜렷한 기록이 없이 효종(孝宗) 10년(年)에 인경궁(仁慶宮)의 구기(舊基)에 부마(駙馬)의 집을 지었다는 실록(實錄)의 기사가[22] 나타난다. 따라서 인경궁(仁慶宮)은 인조(仁祖) 25년(年) 창덕궁을 지으면서 건물의 대부분을 잃고 궁궐로써의 자취를 잃게되었다고 생각된다.

(2) 철거자재(撤去資材)의 전용(轉用)

인경궁의 건물을 창덕궁에 이건(移建)하는데 있어서는 일부 건물은 동일(同一)한 규모로 그대로 옮겨졌으며 규모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철거된 자재를 충분히 활용(活用)하여 짓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재의 형편에 맞추어 창덕궁의 원래의 모습을 변형시킨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각 작업소별로 철거해 온 건물의 명칭·규모와 함께 자재의 수량을 적었는데 창경궁 수리때와는 달리 자재명이 아니고 건물의 부재명(部材名)을 밝히고 그 수량을 적었다. 또한 새로 조성된 창덕궁의 건물명과 규모 그리고 조성에 소요된 자재를 역시 부재에 따라 수량을 적었다. 따라서 창경궁 수리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건(移建)된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건내용(移建內容)을 편전(便殿)·내전(內殿)·외전(外殿)의 부속사 순(順)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창덕궁의 편전은 선정전(宣政殿)으로 규모는 9간(間)이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철겨된 인경궁의 건물은 광정전(光政殿)으로 역시 9간(間)의 건물이다. 선정전(宣政殿)의 주변으로는 북월랑(北月廊) 11간(間), 연화당(讌和堂), 야대청(夜對廳), 동월랑(東月廊), 외남월랑(外南月廊) 등 도합 105간(間)의 부속건물이 세워졌다. 물론 이들 부속건물의 조성을 위하여 인경궁의 광정전(光政殿)주변의 건물들이 함께 철거되었다. 의궤에는 이들 건물에서 철거해 온 자재와 새로 조성하면서 소용(所用)된 자재의 수량을 부재별(部材別)로 밝혔는데 이를 표로

---

19) 韓星國, 仁慶宮考(鄕土 서울 제21호), 1969.

20) 건물의 명칭, 移建관계로 보아 仁慶宮의 弘政殿, 光政殿이 각각 正殿과 便殿이 아닌가 추정된다. 光政殿은 창덕궁 便殿인 宣政殿으로 이건된 건물이며, 弘政殿은 명칭으로 보아 창덕궁의 仁政殿, 창경궁의 明政殿과 같이 正殿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慶壽殿은 大造殿으로 이건된 것으로 보아 內殿의 政堂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보다 확실한 史料의 뒷받침을 要한다.

21) 仁祖實錄 26年 3月 乙巳條

22) 孝宗實錄 10年 4月 壬寅條

정리한 것이 표4이다. 이 표에 나타난 양쪽의 부재별 자재수량의 차이를 검토해 볼 때 창경궁의 선정전(宣政殿)은 인경궁의 광정전(光政殿)을 그대로 옮겨다 지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4 창덕궁 선정전과 주변전각의 조성주요부재

표-4. 昌德宮 宣政殿과 주변전각의 造成主要部材

部材名	宣政殿 및 주변조성부재	仁慶宮 철거부재
礎石	210개	158개
階石	1,280개	1,120개
高柱*	2조	2조
(平)柱	270조	291조
地防	203개	125개
引防	56개	43개
昌防	206개	269개
平防*	25개	25개
上樑昌防*	2조	2조
沙乙尾* (柱頭·小路諸具)	28종	28종
柱頭	198개	184개
小路	702개	565개
立工	188개	219개
大栱*	2조	2조
合掌栱	32조	10조
從栱	42조	42조
平栱	108조	108조
虛栱	4조	4조
衝栱	6조	6조
長舌	461개	449개
道里	422개	399개
大工	113개	104개
廣窓	35척	37척
斜窓	32척	32척
雙窓	14척	26척
朱戶	13척	12척
靑戶	2척	1척
靑分合	14척	16척
朱分合	20척	6척
長椽	1,758개	1,968개
代椽	214개	957개
付椽	540개	534개
扇子椽*	120개	120개
舍羅*	4개	4개
靑夫瓦*	2,540장	2,520장
靑女瓦*	5,250장	5,650장

<page 29 표(1)>

靑夫防草*	223장	223장
靑女防草*	205장	205장
靑雜象*	21개	21개
半丈靑女瓦*	275장	275장
靑單骨莫只*	304개	304개

<page 29 표(2)>
*표는 선정전에만 소요된 부재를 나타냄.

특히 선정전(宣政殿)은 후술(後述)하는 바와 같이 인조년간(仁祖年間)에 조성된 창경궁과 창덕궁의 여러 건물 중 유일하게 당시의 골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물이다. 따라서 현재(現在)의 건물 구조와 표에 나타난 자재를 비교하여 그 이건(移建)내용을 정확히 규명 할 수 있다.

표-4에는 선정전 뿐 아니라 그 부속건물에 소요된 자재가 함께 들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선정전에만 들어간 자재들을 골라 낸다면 「고주(高柱) 2조(條), 대복(大栿) 2조(條), 상량창방(上樑昌枋) 2조(條), 사을미(沙乙尾) 28총(叢),충복(衝栿)·사라(舍羅) 각 4개, 청부와(靑夫瓦) 2,540장(丈), 청녀와(靑女瓦) 5,250장(丈), 청부방초(靑夫防草) 223장(丈), 청녀방초(靑女防草) 205장(丈), 청잡상(靑雜象) 21개, 청단골막지(靑單骨莫只) 304개, 반장청녀와(半丈靑女瓦) 275장(丈), 취두(鷲頭) 2개」이다. 그런데 이들 자재 중 청부와(靑夫瓦) 20장(丈), 청녀와(靑女瓦) 10장(丈), 그리고 취두(鷲頭)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는 모두 인경궁의 광정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현존(現存)하는 선정전의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집으로 단층팔작지붕에 청와(靑瓦)를 덮었다. 내부의 가구(架構)는 고주(高柱) 2개가 건물 전면(前面)에 서 있고, 그 위에 종보가 대공을 받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부재는 그 종류나 수량에서 현재의 건물과 완전히 일치한다. 여기서 한 가지 고찰(考察)을 요(要)하는 것은 다포계(多包系)의 공포 부분으로, 현존(現存) 건물은 주간(柱間)에 간포(間包)가 정면(正面)과 후면(後面)은 각 2구(具), 좌우 측면(側面)은 중앙간(中央間)은 2구(具), 협간(狹間)은 각 1구(具)씩 짜여져 있다. 그런데 의궤의 기록에는 공포부재에 대하여 「사을미(沙乙尾) 이십팔총(二十八叢), 주두소로제구(柱頭小路諸具)」라고 하여 이것이 광정전에서 철거되어 선정전에 쓰였다고 하였다. 사을미(沙乙尾)는 아마도 이두식(式)의 표현으로 보여 「살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주두(柱頭)와 소로(小路) 등이 모두 갖추어져서 28총(叢)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사을미(沙乙尾)」를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많으나 만약 이를 공포 1구(具)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을미(沙乙尾) 28총(叢)은, 현재의 선정된 건물에서 귀포를 제외한 주상(柱上)과 주간(柱間)의 공포의 숫자와 일치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재(部材)의 용어(用語)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要)한다. 다만, 여기서는 의궤가 제시하고 있는 부재의 수량이 결국 현존 건물과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밝히는데 그치고자 한다.

한편 그 밖의 부재에 있어서도 선정전과 그 주변건물을 짓는데 소요된 자재의 대부분은 인경궁에서 뜯어온 것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초석(礎石)은 전체 210개 중 158

개, 계석(階石)은 1280개 중 1120개가 인경궁에서 가져온 것이며, 기둥・도리・장혀 등도 서로 유사한 수량이고 평보・종보는 완전히 일치하는 수량이다. 서까래의 숫자 역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창호(窓戶)에 있어서는 광창(廣窓) 35개 소요(所要)에 인경궁에서 37개, 사창(斜窓)은 32개 소요에 32개, 쌍창(雙窓)은 14개 소요에 26개, 청분합은 14개 소요에 16개 주분합(朱分合)은 20개 소요에 6개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인경궁에서 갖고 온 것으로 충당되었다. 이것은 창경궁에서 창호의 절반 정도를 새로 제작했던 경우와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창덕궁의 선정전과 그 주변건물을 짓는 데에는 인경궁의 광정전과 주변건물에서 옮겨온 자재가 활용되었고, 그것은 초석(礎石)에서부터 창호재(窓戶材)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재사용(再使用)되었다. 특히 선정전은 광정전의 주요 부재를 거의 다 그대로 활용(活用)하여 지었다. 따라서 그 조성은 문자 그대로 이건(移建)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창덕궁의 내전(內殿)을 구성하는 침전(寢殿)을 비롯한 주변 전당(殿堂)의 조성(造成)에 있어서는 선정전(宣政殿)의 경우와 같이 인경궁 건물을 그대로 옮겨다 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철거해 온 자재를 적절히 활용(活用)하여 창덕궁 내전의 본래의 모습이나 기능에 맞추어 재건(再建)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전조성을 위하여 철거된 인경궁 건물과 창덕궁에 새로 지어진 내전 건물가운데에는 일부 동일(同一)한 규모를 이루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규모나 용도가 서로 일치(一致)하지 않고 있다. 규모가 동일한 경우로는 인경궁의 경수전(慶壽殿) 45간(間)을 뜯어서 지은 대조전(大造殿) 45간(間), 경극당(慶極堂) 9간(間) 인덕당(仁德堂) 12간(間)을 뜯어서 지은 보경당(寶慶堂) 9간(間), 태화당(泰和堂) 12간(間) 등이 있으나 다른 건물들은 규모가 일치(一致)하지 않는다. 또한 자재(資材)의 활용면(活用面)에 있어서도 비록 소요량의 대부분을 인경궁에서 철거해 온 자재에 의존하였으나, 건물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인경궁전각을 그대로 옮겨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면관계로 자재의 종류나 수량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생략하고 자재의 활용내용을 검토한 결과만 적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석류(礎石類)는 창덕궁에 원래 있던 것을 재사용(再使用)하였으며, 둘째,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목재(木材)는 인경궁에서 약간 여유있게 철거해 와서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였고, 셋째, 창호재(窓戶材)는 이루를 새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자재활용방법으로 보아 내전건물의 조성은 인경궁 건물을 그대로 이건(移建)한 것은 아니고 창덕궁의 원래의 건물규모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5소에서 작업을 담당한 인정전동월랑(仁政殿東月廊)의 조성(造成)에서는 색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인경궁에서 철거해 온 부재와 창덕궁의 기존 건물의 부재의 칫수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 즉, 창덕궁수리도감의계, 5소의 정해(丁亥) 7월(月) 1일조(日條)의 계(啓)에 「仁政殿東月廊은 지금 造成하려고 하는데 間閣의 좁고 넓음은 이미 稟定되었습니다. 柱長을 다시 재어보니 仁政殿 月廊의 柱長은 13尺8寸이고 인경궁에서 옮겨 온 月廊의 柱長은 11尺 8寸으로 이것을 가지고 지으면 東西月廊의 高低가 고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柱礎를 舊制에 맞추어 높이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柱礎의 높이를 재어보니 1尺 8寸으로 매우 높아 가할 듯 합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소실된 인정전(仁政殿)의 동월랑(東月廊)을 짓기 위해 가져온 인경궁 월랑의 주장(柱長)이 기존의 서월랑(西月廊)보다 2척(尺)이 낮은 것이다. 따라서 초석을 높게 하여 동서랑(東西廊)의 높이를 맞추겠다는 것을 왕(王)께 품한 것이다. 이에 왕(王)은 주초석(柱礎石)을 높이 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 기사(記事)는 창덕궁의 공역(工役)이 새로운 자재를 조달하지 않고, 가급적 인경궁의 철거자재만을 가지고 건물을 재건(再建)하고자 한 의지(意志)의 일면(一面)을 잘 보여준다. 인정전(仁政殿)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그 전정(前庭)을 구성하는 동서월랑(東西月廊)은 다른 건물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곳에 높이가 서로 다른 기둥이 동서(東西)에 세워지게 되었으나 이를 개의치 않고 초석(礎石)을 높임으로써 전체 건물의 높이 만을 같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인정전(仁政殿)의 월랑(月廊)은 순조(純祖) 3년(年), 선정전(宣政殿) 서행각(西行閣)에서 불이 나면서 소실되어 인조(仁祖)때의 모습을 확인할 길은 없으나 위의 기사에서 인조(仁祖) 25년(年)의 창덕궁수리가 전적으로 인경궁의 철거자재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잘 알 수 있다.

第5章 저승전(儲承殿)의 조영(造營)

동궁(東宮) 즉 왕세자(王世子)의 처소(處所)인 저승전(儲承殿)은 본래 창경궁(昌慶宮)에 속(屬)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인조년간(仁祖年間)의 수리시(修理時)에는 창덕궁(昌德宮) 수리(修理)와 병행(竝行)하여 공역(工役)이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저승전에 대하여 별도로 서술하고자 한다.

저승전은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창덕궁 내전이 소실되면서 함께 불에 타게 되었고, 이때 두 세 건물은 화재를 면하였으나 중요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었다. 저승전은 그 후 계속 방치되다가 창덕궁의 수리가 착수된 인조(仁祖) 25년(年)에 비로소 재건(再建)에 손을 대게 되었다. 이 공사는 창덕궁수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인조(仁祖) 25년(年) 8월(月)에 시작이 되어 창덕궁수리도감이 저승전 수리까지 겸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창덕궁수리가 끝난 그 해 10월말(月末)에도 공사완료를 보지 못하였다. 동절기(冬節期)에 접어들었으므로 부득이 공사는 중지(中止)되었다가 이듬해인 인조 26년에 새로 도감을 조직하여 2월(月)에 공사를 재개, 4월(月)에 공역을 마치었다.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에 의하면 인조(仁祖) 25년(年) 8월(月) 15일(日)에 도감(都監)은 「東宮의 舊基는 未造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승전의 樂善堂과 기타 月廊은 前에 造成하였는데 지금 工匠들이 모여 있을 때에 仁慶宮의 東宮을 撤移하여 造成한다면 일이 매우 쉬울것입니다. 臣 등이 日官을 불러 날을 잡아본즉 이번 16日이 最吉이라고 하니 내일 辰時에 開基하고 1소의 郎廳 李松齡, 4所의 監造官黃道亨으로 東宮의 역사를 감역케하고, 혹시 官員이 不足하다면 각 所 중에 工役이 끝나서 감역에 여유가 있는 곳이 겸하여 감역한다면 일이 합당히 이루어질 것입니다」고 하여 왕(王)의 허락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저승전의 공역은 창덕궁수리도감이 일을 함께 맡아 예정대로 개기(開基)가 되고, 한달 후인 9월(月) 15일(日)에는 정초(定礎)·입주(立柱)·상량(上樑)이 각각 묘시(卯時)·오시(午時)·미시(未時)에 거행되었다.

그러나 상량(上樑)을 마친 저승전의 공역은 그 이후로 진척이 없었던 듯 하여 창덕궁 수리가 완성(完成)된 10월(月) 하순에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 결국 10월(月) 30일(日)에 저승전수리공역은 정역(停役)키로 하고 창덕궁수리에 종사하였던 공장(工匠)들은 돌려보내었으며, 11월(月) 13일(日)에는 도감(都監)에 속해있던 관원(官員)들에 대한 시상(施賞)을 하여 창덕궁 공사는 끝을 지웠다.

이듬해인 인조(仁祖) 26년(年) 정월(正月)이 되자 조정(朝廷)은 새로이 저승전공역(儲承殿

工役)을 위(爲)한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공역(工役)을 재개(再開)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2월(月) 11일(日)에 다시 공역을 시작하여 창호(窓戶)설치, 단청 등 마무리 공사를 하고 4월(月) 11일(日)에 가서 모든 공역을 끝마치었다. 이 때에 아울러서 인정전(仁政殿)의 계초(階礎)를 수개(修改)하는 공사도 하였다.

저승전의 수리는 처음 창덕궁수리도감이 맡아 하였으나, 인조(仁祖) 26년(年)에 들어와 따로 도감이 설치되고 공장(工匠)들을 새로이 불러 모았다. 이 도감의 조직을 보면 공사책임자로는 제조(提調)에 공조판서(工曹判書)가 임명되고 그 아래 낭청(郎廳) 2인(人) 감조관(監造官) 4인(人), 영역부장(領役部將) 12인(人)이 임명되었다. 공역(工役)은 재소(在所)·우소(右所)·외소겸세전소현판소(外所兼細箭所懸板所) 및 노야소(爐冶所)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정월(正月) 21일(日)에 정해진 도감사목(都監事目)에 의하면 공장(工匠)에 대하여 「各項의 匠人은 漢城府 및 五部에서 모아들이며, 上司衙門·諸宮家의 砲殺手·皂隷·羅匠 등은 물론 불러들일 것임. 거역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잡아 가두어 공역에 나오도록 독려할 것이며, 木石 및 雜物을 운반할 때는 諸衙門·漢城府는 물론 公私車를 前年의 例에 따라 모으로 雇價는 都監에서 計給할 것임」이라고 하였다. 사목(事目)에는 이와 같이 공장의 소집을 대규모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이때의 공역은 이미 건물의 뼈대가 전년(前年)에 이루어져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이었으므로 실제 공역에 종사한 공장은 많은 솟자는 아니었다. 즉 목수(木手)·석수(石手)·니장(泥匠)·칠장(漆匠) 등 16직종(職種)에 330명이 공역에 종사하였다. 단순노동자인 모군(募軍)은 도합 464인이었다.

인조(仁祖) 26년(年)에 완성된 저승전(儲承殿)의 수리(修理)는 인조초(仁祖初)에 소실당한 전각의 재건(再建)과 당시 소실을 면하였던 건물의 수보(修補)도 이루어졌다. 우선 이때에 새로 조성(造成)된 전각과 수보(修補)된 전각의 명칭을 나누어 보면 새로 조성된 건물은 저승전(儲承殿)·낙선당(樂善堂)·숭경당(崇敬堂)·취선당(就善堂)·손지각(遜志閣)·경극당(慶極堂)이며, 수보(修補)된 건물은 시민당(時敏堂)·진수당(進修堂)·청음정(淸陰亭)·장경각(藏經閣)이었다. 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에는 각 작업소별로 새로 지어지거나 수보(修補)된 건물의 명칭·규모·바닥구조 등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신조(新造)와 수보(修補)부분으로 나누어 적으면 다음과 같다.

<新造殿閣>
儲承殿 28間(東溫堗 6間 上層板班子下層紙班子,
西溫堗 6間 上層板班子 下層紙班子, 大廳抹樓 16間
內北退 3間 攔干內 6間 牧丹班子)
東翼閣 1間 5層 木橋, 西翼 1間, 北翼閣 1間,
東行閣 2間, 東月廊退幷 9間(溫堗 3間 紙班子抹樓
6間), 南月廊7間(溫堗 3間 虛間 4間 鋪甎), 南行閣 1間(鋪甎)
慶極堂退幷 10間(溫堗 3間半 紙班子抹樓 5間半
虛間 1間), 南月廊退幷 7間半(溫堗 3間 紙班子抹
樓 5間半), 東月廊退幷 7間半(溫堗 2間 紙班子抹樓
4間)
樂善堂退幷 5間(溫堗 2間 紙班子, 抹樓 3間內 2
間 牧丹班子), 西行閣 3間(鋪甎), 南月廊 6間(溫堗
2間, 抹樓 4間), 西行閣 3間(鋪甎)

燒廚房 6間 前後退幷 12間(溫堗 4間, 抹樓 8間),
內西月廊 7間(溫堗 2間, 抹樓 5間), 嘉順門 1間,
內南月廊 6間(抹樓 5間, 溫堗 1間), 北月廊 6間
(溫堗 2間, 抹樓 3間, 虛間 1間)
崇敬堂 3間 前退幷 4間半(前面攔干, 溫堗 1間半
紙班子, 抹樓 3間 牧丹班子), 東府舍 3間(溫堗 1間
紙班子 抹樓 3間), 西行閣 15間(鋪甎)
就善堂 7間 前退幷 10間半(溫堗 3間半 紙班子,
抹樓 7間), 靜勝門 1間
東樓上下層幷 18間 (溫堗 3間, 抹樓 15間), 西月
廊 7間(溫堗 2間, 抹樓 2間, 虛間 3間), 南月廊
10間(溫堗 4間, 抹樓 3間, 虛間 3間), 外月廊 6
間(溫堗 1間, 抹樓 2間, 虛間 2間), 外南月廊 18
間 前退幷 24間半(溫饗 11間, 抹樓 10間半, 虛間
3間半), 重光門, 司饗院 5間 前退幷 6間(溫堗 1間,
抹樓 5間), 倂上廳 1間, 嬪宮長房 6間連付舍幷 9
間(溫堗 2間, 抹樓 2間, 虛間 2間), 郎和門 1間
遜志閣 7間半(溫堗 1間半 紙班子, 抹樓 6間內 1
間, 板班子, 西邊 4間 攔干), 行閣 19間(鋪甎, 南
邊 13間半 攔干), 小房 16間半(東溫堗2間, 西溫
堗 2間, 抹樓 8間半(廚間 1間 虛間 1間, 廁間 1
間), 長房 13間半(東溫堗 2間, 西溫堗 2間, 抹樓
5間, 廚間 2間半, 虛間 2間), 別監房 6間(抹樓 3
間, 虛間 3間), 司鑰房 7間(溫堗 1間, 抹樓 5間,
虛間 1間), 精抄軍廳 11間(溫堗 1間, 虛間 10間),
水刺間 6間(抹樓) 大殿精抄軍廳 11間半(溫堗 1間
虛間 10間半), 貳極門 1間, 泰亭門 1間
<修補殿閣>
淸陰亭 3間(溫堗 2間, 抹樓 1間), 淸輝門 1間,
協祥門 1間, 資善門 1間, 外南月廊退幷 18間半(溫
堗6間半內 3間, 紙班子, 抹樓 7間半, 虛間 3間半
鋪甎), 廁間 4間, 霽陽門
時敏堂 9間
進修堂 12間
藏經閣 3間
集英門 1間, 集賢門 1間, 侍講院, 建陽門 1間,
重明門 1間.

이상, 인조(仁祖) 25년(年)에 이루어진 저승전의 여러 전각의 명칭과 규모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전각의 조성을 위하여 인경궁(仁慶宮)의 동궁(東宮)과 여타(餘他)건물이 철거되었었다. 역시 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에 기록된 철거된 인경궁 동궁 등의 전각명과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承華殿 45間, 東行閣 4間, 西行閣 4間, 西月廊
15間, 南月廊退幷 19間半, 北月廊 4間, 東行廊大
門南邊月廊退幷 20間, 北邊月廊退幷 9間, 西邊平月
廊 4間, 重暉堂東月廊 13間, 北月廊 50間,啓明堂東南行閣 25間, 第1別堂 19間半, 第2別堂20間,
內帑庫樓 16間, 崇德堂東行堂 5間, 後行閣 6間, 月廊4間, 壁月堂層閣 5間, 小房 21間, 慶寧殿東前平廊 3間, 守宮房 9間, 新造家 3間, 體元門 1間, 柱一門 1間

이와 같이 저승전은 인경궁의 동궁(東宮)과 기타 건물들이 철거되어 많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일부 전에부터 있던 건물에 대한 수보(修補)가 있었다. 그런데 창경궁수리나 창덕궁 때와 같이 그 조성(造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 저승전의궤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것은 저승전의 뼈대공사가 이미 창덕궁수리 때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승전의궤를 정리할 때 이를 명기(明記)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부득이 저승전공역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조성된 전각들의 명칭·규모와 철거된 인경궁전각의 명칭들을 살펴보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第6章 인조조(仁祖朝) 이후(以後)의 창경궁(昌慶宮)과 창덕궁(昌德宮)

인조년간(仁祖年間)에 창경궁(昌慶宮)과 창덕궁(昌德宮)의 수리공역(修理工役)이 있고 나서 양궐(兩闕)의 전각들은 수 차례의 화재(火災)로 건물들이 또 다시 소실되고 재건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文獻)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으므로[23] 여기서 이를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인조년간(仁祖年間)의 공역(工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한(限)하여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효종(孝宗) 3년(年)(1952)에 있었던 창덕궁·창경궁 수리공역(修理工役)으로 이 공사는 인조(仁祖)25년(年)(1647)과 26년(年)에 창덕궁과 저승전의 공역(工役)이 있은지 불과 5년이 안된 시점에서 인조(仁祖)때 수리했던 건물을 대상으로 또 다시 수리공역(修理工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조년간(仁祖年間)에 이루어진 수리공역(修理工役)의 성격을 음미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인조(仁祖)때의 공역(工役)이 부실(不實)한 것이어서 5년 후(年後)에 이를 다시 손대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공사(工事)의 범위를 추가·확대해야 했던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인조(仁祖)때 인경궁(仁慶宮)의 전각들을 뜯어다가 이건(移建)한 창덕궁·창경궁의 여러 건물 중에 소실(燒失) 등의 재난을 면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물은 어떤 것인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양 궁궐은 잦은 화재와 금세기(今世紀)에 들어와 건물이 철거되는 수난을 겪었지만 어떤 건물은 인조(仁祖)때 재건(再建)된 이래 큰 재난을 겪지 않고 무사히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편으로 인경궁(仁慶宮)의 건물을 오늘날에 보여주는 귀중한 유구(遺構)가 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인조(仁祖)때의 이건공역(移建工役)의 실증적(實證的) 유례(遺例)로서 의의가 크다. 여기에 대하여는 일부 문헌에 이 건

23) 서울특별시사, 고적편, 1964, 등

물도 소실되었다가 후에 재건된 것으로 잘못 소개되어 있어 차제에 이의 올바른 검증을 요(要)하기도 하는 바이다.

우선 효종(孝宗) 3년(年)에 있었던 창덕궁·창경궁 수리공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공역에 관하여는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가 있어 공사의 범위·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이 의궤에는 효종(孝宗) 3년(年)에 왜 양 궁궐을 수리해야 되었는지를 밝힌 대목은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양 궁궐의 전각 중 수리를 한 건물의 명칭과 수리된 부분을 밝혀놓았다. 그 기록에 의하면 수리된 건물은 모두 인조(仁祖) 때 인경궁 전각을 이건(移建)하여 새로 짓거나 수보(修補)된 건물들이며, 수리 부분은 가가 건물의 온돌(溫堗)의 개조(改造), 파손된 전석의 교체, 일부 건물의 기와 교체, 마루부재 교체, 창호(窓戶)의 교체 일부 도회(塗灰) 등이다.

수리가 이루어진 건물을 보면, 창덕궁의 대조전(大造殿)·희정당(熙政堂)·집상당(集祥堂)·징광루(澄光樓)·옥화당(玉華堂)·태화당(泰和堂) 등 내전(內殿)의 대부분과 선정전(宣政殿) 등으로 인조(仁祖) 25년(年)에 수리(修理)가 이루어졌던 건물들이며, 창경궁에서도 통명전(通明殿)·여휘당(麗輝堂)·양화당(養和堂)·연희당(延禧堂)·연경당(演慶堂)·경춘전(景春殿) 등 인조(仁祖) 11년(年)에 수리된 건물과 숭문당(崇文堂)이 대상이었으며, 저승전(儲承殿)의 낙선당(樂善堂)·경극당(慶極堂)·취선당(就善堂)·청음정(淸陰亭)·진수당(進修堂)·손지각(遜志閣) 등 역시 인조(仁祖) 26년(年)에 수리된 건물들이다. 각 전각의 수리내용을 살펴보면, 온돌(溫堗)의 수보(修補)는 거의 모든 건물에 해당되며, 일부 건물은 온돌(溫堗)의 개조(改造)가 이루어졌다. 그 중 대조전(大造殿)에는 동온돌(東溫堗) 6간(間)이 신조(新造)되었으며, 대조전(大造殿) 동서익각(東西翼閣), 저승전(儲承殿)의 좌우익각(左右翼閣)은 온돌(溫堗)이 개조(改造)되었다. 전석(磚石)도 파손된 것을 수보(修補)하거나 새로 깔았는데 대조전(大造殿)·희정당(熙政堂)·선정전(宣政殿)·숭경당(崇敬堂)에서였다. 통명전(通明殿)과 경춘전(景春殿) 그리고 저승전의 청음정(淸陰亭)은 마루의 이기(耳機)(귀틀)와 청판(靑板)등의 썩은 부분을 갈아내었으며, 대조전(大造殿) 동서익각(東西翼閣)·월랑(月廊), 옥화당(玉華堂) 등은 창호(窓戶)의 상당부분을 교체하거나 새로 집어 넣었다. 통명전(通明殿)·양화당(養和堂)은 기와 3,000장 정도를 갈았으며, 화계(花階) 여러 곳이 수개(修改)되었다. 그밖에 양상도회(樑上塗灰)가 대부분의 전각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인조년간(仁祖年間)에 수리(修理)되었던 전각들은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분적인 수리(修理)가 각 건물에 이루어졌고, 특히 온돌(溫堗)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수보(修補)를 하거나 일부 개조(改造)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효종연간(孝宗年間)의 수리내용(修理內容)으로 보아 추측되는 것은 인조(仁祖)때의 양 궁궐의 수리공사(修理工事)가 인경궁(仁慶宮)의 철거자재(撤去資材)로 이건(移建)하였으며, 공사기간(工事期間)이 불과(不過) 3,4개월이었다는 점등에서 건물 세부의 마무리나 기능면에 불충분(不充分)한 부분을 많이 남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특히 온돌(溫堗)은 거의 모든 건물에서 다시 수보(修補)되었다고 하며 일부 전석(磚石)·기와·창호(窓戶)의 설치에서도 수개(修改)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인조(仁祖)때의 공역(工役)이 타처(他處)의 재목(材木)을 뜯어다 성급히 지어내면서 부실(不實)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인조(仁祖)때 대대적으로 재건(再建)되었던 창경궁(昌慶宮)과 창덕궁(昌德宮)은 정조(正祖) 14년(年)에 창경궁 통명전(通明殿)이 불에 타 없어진 후 피해가 없다가 순조대(純祖代)에 들어와 큰 피재(被災)를 입었다. 순조(純祖) 3년(年)에 인정전(仁政殿)이 불타고 순조(純祖)30~33년(年)에는 창덕궁(昌德宮) 내전(內殿)과 창경궁(昌慶宮) 내전(內殿)의 거의 대부분이

불에 타버린 것이다. 이 후 이 건물들은 모두 재건되었지만 이러한 화재로 인하여 인조(仁祖) 때 재건되었던 건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다만 창덕궁(昌德宮)의 선정전(宣政殿) 만은 여러 차례의 화재에도 요행히 재난을 면하여 인조(仁祖) 때 인경궁(仁慶宮)의 전각을 뜯어서 이건(移建)한 건물가운데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선정전은 창덕궁의 외전(外殿)중 편전(便殿)으로 인정전(仁政殿)의 바로 우측(右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순조(純祖) 3년(年)에 인정전(仁政殿)이 불에 탈 때 행랑까지는 불이 붙었으나 다행히 화재를 당하지 않았고, 이 후로는 궁내(宮內)의 화재가 주로 내전(內殿)에서 일어났으므로 재난을 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문헌에는 순조실록(純祖實錄)의 기록을 참조하여 선정전(宣政殿)이 순조(純祖) 3년(年)에 인정전(仁政殿)이 소실 될 때 함께 불에 타서 나중에 재건되었다고 적고 있다.[24] 그런데 당시의 화재는 선정전이 아니고 선정전의 서행각과 인정전이 불에 탄 것으로, 순조 3년의 화재 때 선정전이 소실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이를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순조(純祖) 3년(年) 12월(月) 13일(日)(갑술(甲戌))의 실록(實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仁政殿이 불에 타다. 酉時에 불이 선정전서행각에서 일어나 인정전에 연소되었다. 궁성을 호위토록 명하였다. 璿源殿이 인정전에 가까이 接하였으므로 政院에서 불을 피하게 할 것을 요청하니 閣臣으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 거행토록 하였다. 영전의 移奉처소로는 宙合樓를 택하니, 그대로 하도록 하였다.…(中略)…. 왕은 창경궁의 景春殿으로 移御하였다.[25]」즉 화재가 있던 날의 실록의 기사에는 불이 선정전서행각에서 일어나 인정전이 소실되었다고 하였을 뿐 선정전이 소실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인정전(仁政殿)은 이듬해에 복구되었는데 이 때 선정전의 서행각(西行閣)이 함께 수리되었다는 기록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나와 있다.[26]

선정전의 서행각이 불에 탔다가 순조(純祖) 4년(年)에 복구된 것 외에 선정전과 관련한 기사를 사료(史料)에서 찾아보면 현종(玄宗) 15년(年)(1674) 7월(月)의 수리기사(修理記事)가 있다. 이에 대한 실록의 기사는 「上이 曰, 宣政殿에 傾側處가 있어서 점차 損傷하게 되니 8月初에 修改할 것을 戶兵曹에 분부하라」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선정전은 건물이 기울어져 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에 타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수리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실록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창덕궁 선정전은 인조(仁祖)때에 이루어진 양 궁궐의 재건 전각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며, 동시에 인경궁(仁慶宮)의 건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건(移建)되어 그 자취를 남기고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맺는 글

인조조(仁祖朝)의 창경궁(昌慶宮)과 창덕궁(昌德宮)의 조영(造營)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경궁(仁慶宮)의 전각을 철거하여 이루어졌으며, 당시 양 궁궐에 새로 조성된 전각들

24) 서울六百年史 卷 2, 第 3章, 第 1節 宮闕, p.105, 1980.
25) 原文, 「仁政殿災. 酉時, 火起於宣政殿西行閣, 延燒至仁政殿. 命宮城扈衛, 璿源殿接近仁政殿政院, 以救 火戒嚴之節, 令閣臣, 從便擧行. 又以移奉處所, 以宙合樓爲之之意.…. 上, 移御昌慶宮之景春殿」
26) 承政院日記, 純祖 4年 3月 15日條.

은 창경궁 내전과 창덕궁 외전 일부나 내전 대부분 그리고 동궁(東宮)의 처소(處所)인 저승전(儲承殿) 일곽이었다. 이제 이들 공역내용(工役內容)을 기록한 조영문서(造營文書)인 『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등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조(仁祖) 11년(年)에 있었던 창경궁(昌慶宮)의 수리(修理)의 내용을 보면,

(1) 창경궁의 수리공역은 3월(月)에서 7월(月)까지의 빠른 기간에 완성되었다.

(2) 수리공역(修理工役)은 이조(移造)·수보(修補)·신조(新造)로 구분되며 이조(移造) 즉 인경궁건물을 철거하여 지은 건물은 통명전(通明殿)·양화당(養和堂)·연희당(延禧堂)·연경당(演慶堂)·환경전(歡慶殿)·경춘전(景春殿)과 주변의 행각(行閣)·월랑(月廊) 등 내전(內殿)의 주요건물들이고 수보(修補), 즉 이괄의 난 때 소실을 면하여 수리된 건물은 외전(外殿)의 명정전(明政殿)·문정전(文政殿)과 주변 건물 그리고 내전(內殿)의 여휘당(麗輝堂) 등이다. 신조(新造)된 것은 각 월랑(月廊)의 1, 2간(間)을 첨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재건(再建)된 중요건물들은 4면퇴(面退), 전후퇴(前後退)를 갖춘 구조로 되었으며, 건물규모는 대부분 동궐도(東闕圖)와 일치(一致)하였다.

(4) 이조(移造)에 있어서는, 인경궁(仁慶宮)에서 철거돼 온 건물규모와 동일(同一)한 규모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창경궁(昌慶宮) 본래의 구기(舊基)를 살려서 재건(再建)되어 궁(宮)의 전체 형태나 규모에 큰 변화는 없었다.

(5) 함인정(函仁亭)은 종래 인경궁 함인당(函仁堂)을 이건(移建)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의궤의 기록에 의해 경수전후행각(慶壽殿後行閣)을 이건(移建)하고 일부 신축(新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명전(通明殿)이 이 때 청와(靑瓦)를 덮은 건물로 재건되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인조(仁祖) 25년(年)에 있었던 창덕궁(昌德宮)의 수리공역(修理工役)에서는

(1) 공기(工期)는 6월(月) 하순부터 10월(月) 하순까지 약 4개월이었으며, 창경궁에 비해 공사규모가 커서 공사조직이 방대하였고, 전국(全國) 지방(地方)에서 공장(工匠)이 소집되고 승려(僧侶)·군인(軍人)들까지 공역에 동원되었다.

(2) 조성(造成)된 전각은 외전(外殿)의 선정전(宣政殿)과 그 주변, 인정전동월랑(仁政殿東月廊)과 내전(內殿)의 대조전(大造殿)·집상당(集祥堂)·징광루(澄光樓)·옥화당(玉華堂)·정묵당(靜默堂)·희정당(熙政堂)·보경당(寶慶堂)·태화당(泰和堂)·소덕당(昭德堂) 등과 주변 월랑(月廊) 등으로 도합 817간(間)에 달하였다.

(3) 내전(內殿)의 중요전각들은 모두 바닥구조가 온돌과 마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건물의 규모는 동궐도(東闕圖)와 거의 일치(一致)하였다.

(4) 이건(移建)을 위하여 철거된 인경궁(仁慶宮)의 건물은 홍정전(弘政殿)·광정전(光政殿)을 비롯하여 경수눌(慶壽訥)·중휘당(重暉堂)·화정당(和政堂)·경극당(慶極堂)·충묵당(沖默堂)과 각 주변 행각(行閣)·월랑(月廊) 등으로 이 때의 건물철거로 인경궁은 궁궐로써의 면모를 거의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래 알려지지 않았던 인경궁 건물의 명칭, 규모가 여기서 상세히 밝혀졌다.

(5) 이건(移建)에 있어서는 자재(資材)의 대부분을 철거자재로 충당(充當)하였으며, 선정전(宣政殿)과 같이 인경궁 건물을 그대로 옮겨온 경우도 있고, 인정전동월랑(仁政殿東月廊)의 경우 철거자재의 치수에 따라 원래의 건물형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전(內殿)에서는 대체로 철거자재에 의존하여 건물을 재조립(再組立)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건물은 구기(舊基)를 살려서 재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궁처소(東宮處所)인 저승전(儲承殿)은 인조(仁祖) 25년(年)에 창덕궁수리(昌德宮修理)와 함께 수리공역(修理工役)이 착수되었으며, 겨울에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이듬해인 인조(仁祖) 26년(年) 4월(月)에 완성되었다. 이 때도 인경궁(仁慶宮)의 동궁(東宮)을 철거하여 저승전(儲承殿)·낙선당(樂善堂)·숭경당(崇敬堂)·취선당(就善堂)·손지각(遜志閣)·경극당(慶極堂)을 재건하고 전(前)에 있었던 시민당(時敏堂)·진수당(進修堂)·청음정(淸陰亭)·장경각(藏經閣)을 수보(修補)하였다.

이상(以上)의 창경궁(昌慶宮)·창덕궁(昌德宮) 그리고 저승전(儲承殿)의 수리공역(修理工役)은 단기간에 많은 건물을 이건(移建)하는 작업이었던 만큼 부실(不實)한 부분(部分)도 없지 않았던 듯 하여 창덕궁수리가 있은 지 5년 후(年後)인 효종(孝宗) 3년(年)에 각 전각의 온돌·마루, 지붕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역이 있었다.

인조(仁祖) 때 조성(造成)되었던 창경궁·창덕궁의 전각들은 그 후 거듭된 화재(火災)로 모두 소실되고 유일하게 창덕궁 선정전만이 잔존(殘存)하여 인조(仁祖) 때의 건물 모습을 남기고 있다. 더욱이 이 건물은 인경궁(仁慶宮)의 광정전(光政殿)을 그대로 이건(移建)한 건물로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인경궁(仁慶宮)의 수많은 전각 중 유일하게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